

INCHEON AIRPORT MAGAZINE

MORE & BEYOND

SEPTEMBER+OCTOBER

Vol.89



〈MORE&BEYOND〉
독자님이 궁금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발행하고 있는
〈MORE&BEYOND〉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소중한 의견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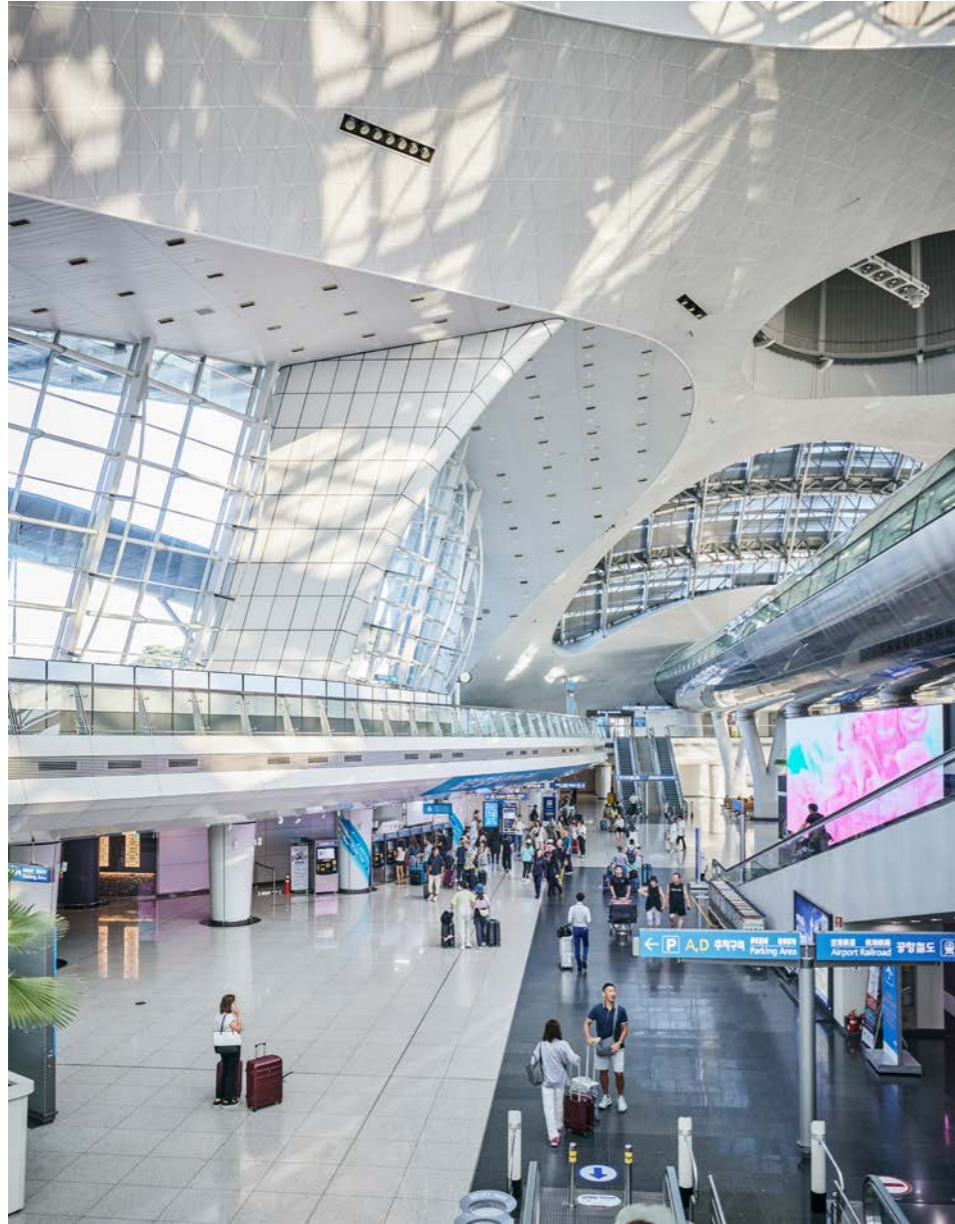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면
독자의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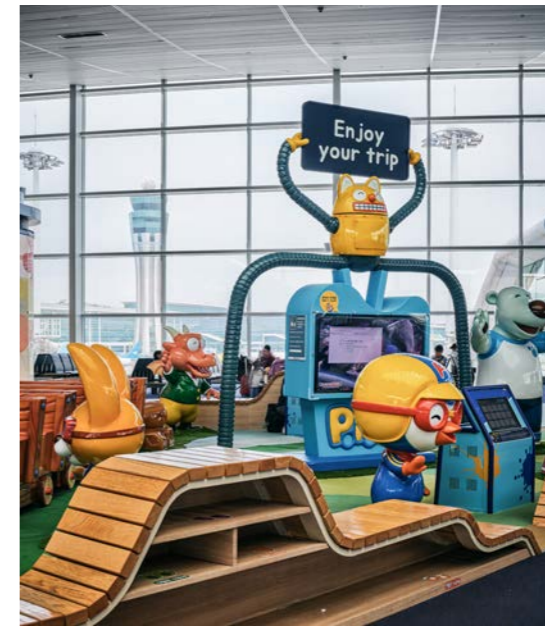
하늘로 향하는 시선을 사로잡다 대한민국의 하늘 길

인천공항부터 시작해
인천공항에서 즐기고
인천공항으로 돌아옵니다

누구나 공항으로 향할 때는 하늘을 기대합니다.
커다란 비행기에 몸을 싣고 떠나는 그 순간을 위해
누군가는 설레는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고,
누군가는 바쁜 일상에서 짜릿하게 탈출하죠.
하늘로 향하는 마음으로 다다른 공항에서
우리는 또 다른 공간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서둘러 목적지로 향하는 여행객 사이로, 인천공항의 숨어 있던 공간이 눈에 들어옵니다. 시원스레 뻗은 기둥 사이 탑승구 번호, 커다란 창밖으로 보이는 관제탑, 공항 곳곳을 채우는 예술 작품까지, 공항의 면모는 자세히 볼수록 새롭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멈춰 선 공항 어디쯤,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한숨 돌리면 인천공항은 조용히 당신에게 말을 건넵니다.
“당신의 여행의 시작과 끝이 언제나 편안하고 안전하길, 공항에 머무는 그 순간부터 여행이길, 당신이 머무는 이 공간 그대로 추억이 되길.”



CONTENTS

MORE&BEYOND
2023 SEPTEMBER+OCTOBER
VOL.89

인천국제공항 매거진
MORE&BEYOND
2023 SEPTEMBER+OCTOBER / VOL.89
격월간(비매품)

등록번호 인천중, 바00008
발행처 인천국제공항공사
발행인 이학재
발행일 2023년 9월 1일
담당부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홍보실 032-741-2115
기획·디자인 및 제작
승일미디어그룹 1800-3673

PLUS I CULTURE & LIFE

08
ESSAY
여행을 좋아하진 않지만 공항 잡지에 글을 쓰는 이유

12
TRAVEL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의 역사, 문화 수도 이스탄불을 가다

20
PEOPLE
도시를 여행하는 도시 건축가의 여행의 시간

26
LIFE STYLE
다중 인격이 존중받는 시대 진짜 나를 찾아서, 멀티 페르소나

30
TREND
인공지능 저 너머, 선제적 대응 기술

34
CULTURE
공항이야? 갤러리아? ART IN AIRPORT

40
SPACE
공항철도 타고 시티 투어 떠나자!

44
HEALTH
재미와 건강! 도전해보고 싶은 이색 운동

PLUS II AIRPORT ISSUE

46
LIVE
기다림, 시간 그리고 출발

50
TRAVELER
여행의 시작과 끝, 공항에서 만난 설렘 이야기

54
AIRPORT PEOPLE
에어인디아 조두환 지점장·그레이터베 이항공 김중기 지점장

58
ISSUE
내 얼굴이 신분증이 되는 ‘스마트패스’

60
SURVEY
추석 여행, 어디로 누구와 떠나볼까?

62
ESG
인천공항 합동 자원봉사단 V-엠배서더

68
SPOT
공항 속 쇼핑 맛집을 찾아라

70
TIP
전 세계 유일, 공항 복합 문화 축제 2023 SKY FESTIVAL

72
SENSE
비행기 비상구 정책, 이렇게 달라져요

74
NEWS

78
EVENT

79
EPILOGUE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본 간행물은 FSC 인증을 받은 종이와 콩기름 잉크를 사용해 제작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진 않지만 공항 잡지에 글을 쓰는 이유



나는 이제 여행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 떠나지도 않지만, 공항에는 꽤 자주 가고 있다.

글. 정태현 작가



스물여덟 살, 덜컥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났다. 누군가는 내가 좀 더 회사에 다니다 여행을 떠났어야 했다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젊을 때 여행을 잘 다녀왔다고도 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때론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닌가 싶기도 한, 딱히 답을 정하기 어려운 문제인 데다 나에 관한 이야기라 더욱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이야기해보자면 ‘여행을 잘 다녀왔다고 생각한다. “아니야. 틀렸어. 그렇지 않다니까”라고 했던 분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500일 넘는 길고 긴 세계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이따금씩 사막의 열풍처럼 불어오곤 했다. 그럴 때면 머리가 뜨거워져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 거센 모래바람에 한 치 앞조차 보이지 않았고, 머릿속 생각은 바짝 말랐다.

그때의 난 왜 그토록 떠나고 싶어 했을까?

여행을 떠나기 전의 나는 답을 정하기 어려운 문제조차 내가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생각하곤 했다. ‘틀린’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내가 머무는 곳에서 쌓이는 불만은 곧 외부 세계를 향한 동경으로 이어졌다. 도 님는 사람이 많다는 인도로 가고 싶었고,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사람들이 산다는 프랑스로 가고 싶었다. 또 어렵פות이 이름만 들어본 생소한 나라로 가고 싶었다. 저 바깥 세상 어딘가에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로부터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답을 들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여행을 다녀오고 나니 처음 떠날 때 생각했던 것처럼 답을 찾긴커녕 사람들 말에 따라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닌가 싶기도 한, 여러 의미로 답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여행을 통해 답 없는 사람만 되어버린 게 아니다. 더는 여행을 떠나고 싶지도 않아졌다. 다만 그게 이미 긴 시간을 들여 세계 여행을 한번 다녀온 까닭인지 아니면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지금은 굳이 돈 쓰며 힘들게 떠나기보다는 선풍기를 틀어놓고 소파에 반쯤 누워 맥주 한 캔과 함께 감자 칩을 먹으며 재밌는 영화 한 편 보는 편이 훨씬 좋다는 것이다. 좀 더 낮다 정도가 아니라 훨씬 좋다.



그렇다고 젊을 적 여행을 떠났던 걸 후회하는 건 아니다. 혹여 그때 떠나지 않아 지금까지도 떠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머리가 뜨거워지는 일을 계속 겪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 여행을 떠나지 않았더라도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머리가 뜨거워지는 일 역시 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단순히 나이 문제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행을 다녀온 건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나라면 그런 뜨거운 여행은 다시 못할 테니까.

지금은 아무리 열이 나더라도 시원한 맥주 한 캔이면 금세 식고 만다. 젊을 때 덜컥 회사를 그만두고 떠났던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정도로 이제는 여행이 간절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다. 젊을 때는 일부러 사서 하는 고생마저 즐거웠다만, 나도 이제는 사서 고생할 나이는 지났다. 이제는 그런 나이가 된 것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내겐 해당되지 않는다. 여행을 꼭 가야 한다면 이제는 사서 고생하는 여행보다는 멋진 해변 위 선베드에 누워 파도 소리를 들으며 달달한 블루하와이 칵테일과 함께 그동안 아껴두었던 좋아하는 작가의 신작 소설을 읽지 않고 끝까지 쪽 읽어 내려가는 여행을 하고 싶다. 그게 바로 지금의 내가 꿈꾸는 여행이다. 라고 말하러니 그곳까지 가는 것이 너무 귀찮다. 호텔도, 비행기도 예약해야 하고 또 여행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며 이동 시간이며... 생각해보니 역시 집이 최고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제 여행을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고 잘 떠나지도 않지만, 뻔뻔하게 잘도 공항 잡지에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공항에 꽤 자주 가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에 사는 외국인 친구가 많기도 하고, 같이 사는 아내마저 외국인이라 아내의 친지나 친구들 역시 한국을 종종 찾기에 외국에서 한국을 찾는 이들을 마중 나간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예전에는 한국에 전혀 관심이 없던 친구들이나 아내의 가족, 친지마저 한국을 찾고 있어 나도 바빠졌다.

여행은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공항의 분위기는 여전히 좋아한다. 공항에 갈 때면 매번 기분이 좋아진다.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 새로운 곳에 도착해서 들뜬 사람들을 볼 때면 나 역시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예전에는 공항을 어딘가로 떠나는 여행자로서 찾았다면, 이제는 여행자를 맞이하는 사람으로 찾고 있다. 젊을 적 세계를 여행하며 그곳 사람들에게 받았던 환대와 친절을 이제는 하나씩 갚는다. 한때 여행 좀 해본 사람으로서 좋은 점은 아무래도 여행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안다는 것이다. 나 자신부터 여행 기억을 떠올려보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는 건 유명 관광지가 아니라 현지 사람들에게 받았던 환대와 친절이니까.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경복궁, 남산타워, 홍대 거리는 사진으로 남고 우리나라에서 만난 사람들의 웃는 얼굴과 그들에게 받았던 친절은 잊히지 않을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낯선 여행지에서 받는 환대와 친절의 힘을 생각할 때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문화가 다르니 그럴 수도 있다는 준비된 배려의 마음가짐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여행자들에게 웃으면서 친절을 베풀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된다.

그런 이유로 나는 언제나 길을 헤매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듯한 외국인을 보면 먼저 웃는 얼굴로 다가가 내가 도와줄 일이 없냐고 묻는다.

그렇게 내게 도움을 받은 외국인은 고맙다며 꼭 한번 자기 나라를 찾아달라고 말하지만...

“이거 미안해서 어찌죠. 말씀은 정말 고맙지만 제가 여행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글쓴이 정태현은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된 과정을 글로 쓰는 작가다. 지은 책으로 <여행은 결국, 누군가의 하루>, <오마이 투쟁>이 있으며 소설 <때론 버텨야만 하는 날들이 있다>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의 역사, 문화 수도 이스탄불을 가다



이스탄불은 인구가 1600만 명에 이르는 튀르키예 최대 도시다. 특히하게도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에 걸쳐 있다. 이스탄불을 동서로 양분하는 보스포루스 해협은 북쪽의 흑해와 남쪽의 지중해(마르마라해, 에게해)를 잇는 국제적 전략적 요충이다. 이스탄불 시민의 2/3는 유럽(트라키아)에, 1/3은 아시아(아나톨리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상 중에도 두 대륙을 넘나든다.

글. 이재천 의학박사·여행작가



이 도시는 이후 1100여 년간 황제의 이름을 따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불렸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은 술탄 메흐메트 2세가 이끄는 오스만제국에 함락당해 오스만제국의 수도가 된 이후 지금까지 이스탄불로 불리고 있다. 이스탄불은 튀르키어로 '도시'라는 뜻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23년에 튀르키예공화국이 출범하고 아나톨리아 중심에 위치한 앙카라를 수도로 삼았다. 이스탄불은 수도의 지위를 상실했으나 과거 비잔티움제국, 오스만제국을 아우르는 역사의 중심이며, 튀르키예의 문화와 경제의 중심 역할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유네스코는 1985년에 이스탄불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1 앙카라 한국공원에서 만나는 한국 전통 장식과 기념탑
2 매년 4월경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튤립 축제
3 이스탄불의 명동으로 불리는 이스티클랄 거리의 빨간 트램바이

이제 이스탄불(Istanbul)로 출발!

도심에서 수천만 송이의 튤립을 볼 수 있는 튤립 축제로 유명한 4월과 날씨가 화창한 9월이 이스탄불을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특히 9월은 조금 따이 나는 정도의 따스한 햇볕과 도시를 관통하는 보스포루스와 남쪽 마르마라해를 끼고 있는 해안도시 치고는 전혀 습하지 않아 야외 활동하기에 좋다. 해안을 끼고 있는 대도시들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은 고도인 이스탄불도 예외는 아니다. 도시가 융성해짐에 따라 사방으로 뻗어나가야 하는데, 도시의 팽창이 제약되기 때문이다. 보스포루스의 카바타쉬항 인근에서 출발해 이스탄불의 구도심 파티(Fatih)지역을 관통하는 노상 철도인 트램을 이용하면 교통 체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국전쟁 16개 파병국 중 하나로 우리와 인연을 맺어 주저없이 '형제의 나라, 터키'로, 그들은 우리를 피(kan)와 형제(kardeş)의 합성어인 '칸 카르데쉬'로 부른다. 2022년 초에 공식 영문 표기가 변경됨에 따라 '튀르키예(Türkiye)'라 불려야 하지만 새 이름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듯하다. 개국 5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정부가 튀르키예 국민에게 헌납한 앙카라 한국공원에는 '토이기공화국'이라 새겨져 있다.

2000여 년의 고도, 콘스탄티노폴리스 (Constantinopolis)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브리타니아(지금의 영국), 히스패니아(지금의 스페인·포르투갈), 갈리아(지금의 프랑스), 북아프리카, 발칸, 소아시아, 극동까지 아우르는 로마제국을 하나로 통합했다. 비대해진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야만족의 잦은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용이한 비잔티움(현 이스탄불 구도심)으로 천도를 결정했다. 로마에 이어 세계사의 중심으로 떠오른



이스탄불의 혼과 힘, 보스포루스 (Boğaziçi)

흑해부터 마르마라해까지 총 31km에 달하며 이스탄불을 동서로 가르는 보스포루스도 주요 이동 수단 중 하나다. 보스포루스에 떠 있는 많은 배들은 일부러라도 한번은 타 봐야 하는, '가성비' 훌륭한 교통수단이다.

이스탄불 출신으로 노벨 문학상(2006년)을 수상한 오르한 파묵은 자전적 에세이 <이스탄불 : 도시 그리고 추억>(민음사)에서 보스포루스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이스탄불의 혼과 힘은 보스포루스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도시는 보스포루스를 처음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저 어떤 길, 멋진 풍경, 그리고 최근 200년 동안은 여름용 궁전 혹은 해안 저택이 있는 곳으로 여겼을 뿐이다." (중략) "도시 속에서 노니는 이 물은 암스테르담과 베네치아의 수로, 파리나 로마를 돌로 나누는 강과는 비교될 수 없다."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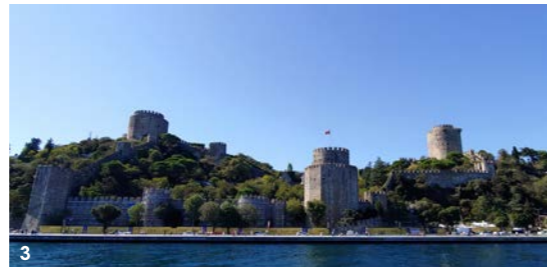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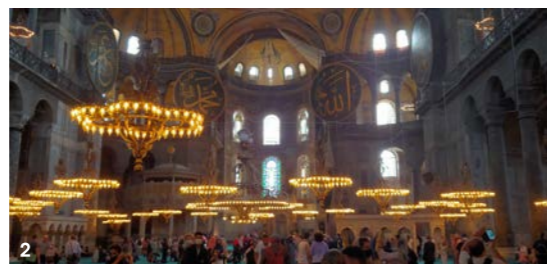


략) “보스포루스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도시와 삶을 건재하게 만드는 무한한 어떤 선(善)과 긍정의 원천이다.”

튀르키예 바다를 지키는 루멜리 성(Rumeli Hisar)

보스포루스의 폭은 최대 3,400m이고 가장 좁은 곳은 약 600m에 불과하다. 오스만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공략하기 위해 보스포루스에서 폭이 가장 좁은 곳 양측에 성채를 쌓았다. 흑해를 통한 가톨릭 국가들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아시아 쪽의 아나톨루 성은 폐허로 남아있으나, 1452년에 축성된 유럽 쪽 루멜리 성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바다에서 올라다보면 역삼각형의 성채의 각 꼭짓점에 3개의 주탑을 두었으며, 각 변에는 각 3개씩 총 9개의 작은 탑이 있다. 보스포루스에 연한 주탑에 대포를 설치해 오가는 배들을 위협했다.

루멜리 성에서 보스포루스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 이스탄불 교외의 부촌인 베벡(Bebek)에 다



다른다. 이곳의 카페와 식당은 보스포루스에 연해 풍광만으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요트를 타고 커피를 마시러 오는 이스탄불 부유층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가보니 보스포루스에서 직접 배를 정박시키지 못하게 되어 아쉬웠다.

비잔틴 건축을 대표하는 대성당, 아야 소피아 (Hagia Sophia Mosque)

537년에 최종 완공되어 1486년(2023년 기준)간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진정 살아 있는 역사적 건축물이다. 로마제국의 대형 돔 건축술에 팬던티브 구조를 더해 16세기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이 완공되지 전까지 1000년 이상 세계 최대 건축물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스정교회 예배당으로 지어졌으나, 오스만제국에 와서는 이슬람 모스크로, 튀르키예공화국 출범 이후에는 건축물 자체가 유물인 박물관으로, 팬데믹 중에는 다시 아야소피아 모스크로 문을 열었다.

모스크로 재개장된 후 이전 박물관일 때와 비교해 몇 가지 장단점이 있어 소개한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박물관이었기에 입장권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입 절차도 번거로웠다. 지금은 종교 시설이기에 24시간 무료 개방이다! 이슬람의 좌식 예배 전통으로 기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새 카펫이 깔렸다. 신발을 벗고 입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1만여 명이 동시에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전체에 카펫이 깔려 다리가 피곤한 여행객들에게는 꿀 같은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다. 우상숭배를 철저히 배격하는 이슬람 전통에 따라 모자이크화를 볼 수 없어 아쉽다. 오스만제국의 정복자들은 1000여 년 전부터 순차적으로 제작된 비잔틴제국의 유산인 모자이크화를 파괴하지 않고 회칠로 덮어 역설적으로 잘 보존했다. 박물관 시



1, 2 세계 건축 역사의 주인공인 아야 소피아 모스크 전경과 아름다운 실내 조명
3 유럽을 향해 축조된 루멜리 성채
4 2021년 추석 보름달과 보스포루스 대교 야경

절 많은 모자이크화가 복원되어 당시의 찬란한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종교적인 이유로 일반에 개방하지 않고 있다. 여성 관람객은 반드시 머리에 스카프를 둘러야 하고, 노출이 있는 차림으로는 입장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하루 다섯 번의 예배 시간에는 여성 전용 공간으로 이동해야 한다. ☹️

글쓴이 이재천은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을 거쳐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및 병원에서 강의하고 진료하고 있다. 의학 박사, 내과 전문의, 알레르기내과 분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본업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넘쳐나는 개인적 호기심을 채워가는 데 소소한 행복감을 느껴왔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형제의 나라, 터키’를 탐닉하던 중, 팬데믹의 역설적 축복 아래 ‘이스탄불 한 달 살기’를 한 후 <그래서 이스탄불-아는 만큼 보여주는 인문기행>(바른북스)을 출간했다.



인천공항이 ‘롤모델’ 튀르키예 이스탄불신공항



유럽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는 3개의 국제공항이 있다. 아시아 쪽 마르마라해에 연한 사비아콕첸공항(Sabiha Gökçen Airport, ISG), 유럽 쪽 마르마라해에 연한 아타튀르크공항(Atatürk Airport, ISL), 유럽 쪽 북측 흑해에 연한 이스탄불신공항(튀르키예어 İstanbul Havalimanı, 영어 Istanbul Airport, ISL) 등이다. 현재 아타튀르크 공항의 기능은 모두 이스탄불신공항으로 이전되었다.

글. 이재천, 안수명



세계 최대 규모의 5성급 스마트 공항

터키공화국 건국 95주년을 기념해 2018년 문을 연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허브 공항인 이스탄불공항. 동서양이 만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공항인 만큼 대규모 프로젝트로 2028년 총 4단계로 완공될 예정이다. 연간 9000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고 완공 후에는 연간 2억 명의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다. 인천공항은 2015년부터 이스탄불신공항 운영 전반에 있어 컨설턴트로 참여했고, 개항 후에도 승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까지 공항 운영과 건설 부분 등 인천공항의 운영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스탄불 공항에는 승객을 위한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셀프 백드롭’은 물론 모바일 앱에 통합된 실내외 내비게이션과 승객별 항공편 정보 수신, 터미널 내 프로모션 알림 등 다양하고 스마트한 공항을 즐길 수 있다.

환승도 즐거운 이스탄불공항

단일 공항 터미널로 역대급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공항 터미널에서의

시간도 알차게 보낼 수 있다. 터미널 내 쇼핑 매장은 181개, 미식을 즐길 수 있는 F&B 시설은 98개이며, 환승객을 위한 공항 호텔인 요텔(YOTEL)은 451개 객실을 운영한다. 혹시 터키항공을 이용해 이스탄불공항에 머무르게 된다면 환승 시간을 체크하자. 터키항공은 환승객들에게 시티투어와 차량, 식사까지 모두 무료 제공하는 ‘투어 이스탄불’을 운영한다. 매일 8회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투어 시작 30분 전까지 도착층 터키항공 호텔 데스크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세 가지 방법

① 공항버스

공항과 시내 방향 이동을 가장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버스 하바이스트(Havaist). 총 11개의 다양한 노선과 다양한 시간대로 운영되며, 이스탄불공항에서 택시까지 요금은 136리라이고, 90분 정도 소요된다. 사비하콕첸공항까지는 2시간 정도 소요되며 요금은 172리라다. 공항 내 티켓 부스에서 승차권을 구입할 때는 현금으로 가능하고, 온라인과 버스 탑승 시에는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www.hava.ist

② 택시

이스탄불의 시내 교통 상황은 대책 없이 막히는 것으로 악명 높다. 많은 여행객들이 택시로 공항과 시내 이동 시 요금에 대

한 불만이 많은 것도 연관이 깊다. 공항의 공식 택시 승강장에는 택시 종류와 거리별 공식 요금표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또 터키의 택시 호출 앱 ‘BiTaxi’를 이용해 목적지별 요금을 가능하거나, 호텔이나 숙소의 송영 서비스를 신청해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③ 지하철

2023년 1월 22일 자로 이스탄불공항 지하철(U metro)이 개통되었다. 향후 가이레테페 역까지 개통될 예정이지만 현재는 카흐타네 역까지만 운행하기 때문에 시내가 목적지일 경우 다른 지하철이나 버스로 환승해야 한다. 운행 중인 공항 지하철을 포함한 이스탄불 시내 지하철은 현대로템의 전동차다. 🚇

도시를 여행하는 도시 건축가의 여행의 시간



홀로 여행 예찬론자지만 커플 여행, 가족 여행, 강아지와 여행 등 다양한 여행에 통달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행의 진수는 홀로 여행이라고 믿는다.

그중에서도 홀로 하는 도시 여행을 즐기는 김진애는 여전히 여행을 꿈꾸며
매일을 여행하는 기분으로 살고 있다.

글. 류창희 사진. 정지원

mahā



올해 3월에 <여행의 시간>을 출간했다. 출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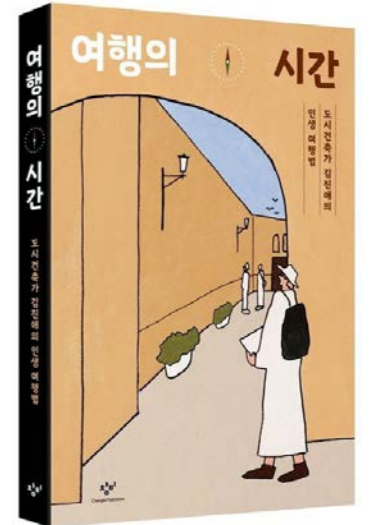
책 작업은 꾸준히 해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을 쓰는 것도 좋지만 내가 쓴 책이 읽는 사람에게 깊이 다가갔는지도 중요하다. 출간 이후 서평이나 블로그 등의 글을 보니 다행히도 사람들의 마음에 확실히 다가간 것 같아서 보람 있는 작업이 되었다. 내가 얼마나 근사한 여행을 했는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느끼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여행을 떠올려주기를 바랐다. 지금까지 해왔던 여행에서 느꼈던 감정,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떠올리거나 앞으로 할 여행에 대해서 꿈꾸게 만들고 싶었는데 성공한 것 같다. 이 책에는 좋은 여행, 나쁜 여행, 실패한 여행이 모두 들어 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여행은 옳은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

<여행의 시간>이라는 제목이 직관적이면서도 와닿는다.

도시 3부작을 끝내고 난 후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다. 내 마음에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시를 여행하는 방법에 대해 쓰게 됐다. 제목은 처음부터 '여행의 시간'이었다. 여행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했고, 인생 자체가 여행이라는 내 철학 과도 맞닿아 있다.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여행이 우리 인생이니까 여행의 시간이 곧 인생의 시간이기도 한 것이다.

'여행의 시간은 짧다. 그러나 여행을 품은 인생의 시간은 길다'라는 문구는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보면 영화를 보는 시간은 2시간 남짓이고, 후다닥 지나간다. 하지만 곱씹을수록 영화의 시간은 점



점 길어진다. 여행도 마찬가지다. 찰나의 순간도 오래 추억할 수 있게 만든다. 여행 덕분에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이다.

덕분에 홀로 여행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

나에겐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홀로 여행을 많이 안 해봤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홀로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홀로 여행의 좋은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감추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사회에서는 홀로 여행하는 사람을 안쓰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나를 통해 마음속에만 있던 버킷 리스트를 꺼냈다는 것이 뿌듯하다. 나이와 상관없이, 남들이 늦었다고 하는 나이라고 해도 홀로 여행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홀로 여행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해외여행으로 시작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점심을 혼자 먹어보고, 카페에 혼자 가보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러다 친구 집에 가서 1박 2일을 보내보고, 국내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하면 된다. 말이 통하고 안전한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서 점차 행동 반경을 넓히면 된다. 패키지여행을 혼자 가는 것도 방법이다. 항공편과 숙소, 주요 교통편은 제공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도 꽤 있다. 잘 활용하면 혼자서도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책에서 다룬 커플 여행 에피소드가 흥미로웠다.

남편과 그렇게 오랜 시간을 24시간 떨어지지 않고 있어본 적은 처음이었다. 수많은 여행을 해봤지만 커플 여행이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라오스부터 베트남까지 보름 동안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다 마지막 라오스 루앙프라방의 길거리에서 싸우고 따로 다녔다. 싸운 이유도 별것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다. 사실 루앙프라방에 도착하는 순간 홀로 여행의 냄새를 강하게 맡았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홀로 다녀야 하는 여행지가 본능적으로 느껴진다.

반려견과의 여행 이야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첫 반려견이었던 진돗개 울림이와의 여행은 지금 돌이켜봐도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 나만 따르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무섭게 구는 강아지였다. 울림이를 입양하고 어릴 때부터 로망이었던 반려견과의 여행을 실행에 옮겼다. 때마침 우리나라 도시를 다니면서 취재하고 신문에 글을 기고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됐고, 새로 장만한 SUV 차량에 울림이를 태우고



전국을 누볐다. 울림이는 보디가드이기도, 친구이기도 했다. 오랜 여정에 지칠 법한데도 내가 차 안에 있을 때는 자지 않고 앉아서 내 수다를 들어줬다. 험담할 거리 있으면 울림이에게도 하고, 속에 있는 말들

을 하면서 함께 다녔다. 그때 같이 다녔던 추억이 몇 달간 뜨거운 연애를 했던 것처럼 기억에 많이 남는다. 취재가 끝나면 인적이 드문 해변에서 뛰어놀던 울림이의 모습도 생생하다.

인생에서 가장 처음 홀로 여행을 한 순간은 언제인가.

혼자 해외여행을 한 것은 스물아홉살 때였지만 떠올려보면 아주 어릴 때부터 혼자 잘 다녔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할머니 택이 있는 산본까지 버스를 타고 갔다. 서울역까지 가서 버스 타고, 시외버스를 탄 후에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시골이었다. 현재의 산본 신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무서웠을 법한데 그때는 잘 다녔다.

프로 여행러로서 진짜 여행은 무엇인가.

여행은 새로운 것, 낯선 것과의 만남이다. 내가 가졌던 기대와 그 기대가 깨지는 것의 만남이기도 하다. 기대가 깨져야 진짜 여행이라고 생각한다. 기대가 깨지지 않는 여행은 잘못된 여행이라는 생각도 한다. 그래서 명소만 찾아다니는 관광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다. 관광지를 다니다 보면 기대하는 것이 분명 있다. 그 기대를 확인하고, 인증샷까지 찍고 오는 것은 여행이 주는 의외의 재미가 반감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왔는데 새로운 뭔가가 나타날 때 큰 재미를 느낀다. 첫 유럽 여행에서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당할 뻔했던 기억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 가끔 꿈에 나타날 정도로 나에게 임팩트 있는 기억이 되었다. 너무 완벽하게 모든 게 짜여진 여행에는 흥미를 못 느끼는 편이다.

그렇게 점점 여행의 근력이 쌓이는 건가.

물론이다. 여행의 근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다리 힘이다. 그다음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하는 법이다. 누구나 길을 잃을 수 있지만 빨리 길을 찾는 것은 위기 대처 능력이 좋은 사람만이 가능하다. 가령 지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여권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할지, 비행기나 기차를 놓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곧 인생의 역경에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여행이나 인생이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맥락에서 길을 잃어보라는 말을 한 건가.

도시 안에서는 얼마든지 길을 잃어봐도 괜찮다. 도시에는 명소가 있는데 이것을 짐이라고 하면 그 사이를 잇는 것은 선이고, 그 근처는 면이다. 우리나라 관광 투어의 문제가 점에서 점으로 연결만 한다는 것이다. 내가 최고의 건축물이라 생각하는 것은 로마의 판테온인데 밀라노에 출장을 갔다가 로마에서 처리할 일이 생겨 급하게 간 적이 있었다. 불일을 마치니 4시 40분이었는데 5시에 문을 닫는 판테온을 보기 위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차가 막혀서 길에서 내려 뛰어서 겨우 도착했다. 그때 봤던 판테온은 잊



을 수 없다. 5년쯤 후 다른 일로 로마 출장을 갔는데 갑자기 그때 말았던 판테온의 냄새가 났다. 이 길을 뛰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면서 이끌리는 대로 갔더니 역시나 판테온이 있었다. 조마조마했던 마음과 안도의 한숨, 감동의 느낌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경험이 완성된 것이다. 그냥 편하게 가면 절대 느끼지 못했을 감동이다. 2000년 전에 만든 판테온이 준 감동 역시 여전했다.

공항에서 반드시 하는 김진에만의 루틴은 무엇인가.

평소에 안 가는 유명 브랜드 숍에 들른다. 평소엔 바빠서 원도쇼핑을 할 시간이 없어서 해외여행 갈 때 인천국제공항에서 온갖 브랜드 숍에 다 들린다. 해외 공항에서는 꼭 관광 상품 숍에 간다. 관광지에서 숍에 들르면 퀄리티는 떨어지고 가격만 높은 제품이 많다. 하지만 공항에서 파는 관광 상품은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것이 꽤 많다. 저렴하지 않지만 품질이 보장된 제품이라 공항의 관광 상품숍을 꼭 들른다.

김진에게 공항은 어떤 의미인가.

익숙함과 안전함이다. 여행 내내 긴장하고 다니다가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안전함을 느낀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편안한 공간이다.

앞으로 계획 중인 새로운 여행이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두 마리의 반려견 중 첫째가 올해로 열아홉 살이다.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이 막혔지만 이제는 반려견 덕분에 조금 망설여진다. 노견을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고, 혹시 내가 없을 때 무지개 다리를 건널까 봐 집을 비울 수도 없다. 하지만 여행은 언제나 기다려지는 일이다. ☺



도시 건축가 김진에는 인간이 문명을 이루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일하며 여행했다. 사람과 삶에 대한 애정과 정치에 대한 희망으로 꾸준히 책을 썼다. tvN <알쓸신잡3>에 출연해 도시와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023년 3월 <여행의 시간>을 출간했다.



다중 인격이 존중받는 시대 진짜 나를 찾아서, 멀티 페르소나



과거의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역할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성향이나 태도를 보이는 이를 변덕스럽다거나 진득하지 못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다양하게 분리되는 정체성, 다중성 자아를 표현하는 ‘부캐의 대중화 시대’가 도래했다.

글. 이수진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복수 자아의 시대

이제 나는 단수(單數)인 ‘myself’가 아니라 복수(複數)인 ‘my selves’다. 근무 중의 나와 퇴근 후 나는 다르고, 일상 생활할 때의 나와 취미 생활을 할 때의 나는 다르다는 점을 현대인들은 쉬이 공감할 터다. 심지어 이용하는 소셜 미디어의 종류에 따라 나의 정체성도 다르다. 카카오톡이냐, 유튜브냐, 인스타그램이냐에 따라 다른 ‘나’로 소통을 하고, 하나의 SNS에서도 부계정이나 가계정 등 여러 개의 계정에 따라 각기 다른 내가 된다. 마치 중국의 변경 배우가 필요에 따라 ‘가면’을 순간순간 바꿔 쓰듯이, 현대 소비자는 매 순간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다.

이때의 가면을 학술적으로 ‘페르소나(persona)’라고 한다. 원래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일컫는 말인데, 심리학에서 타인에게 비치는 외적 성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활용되며 널리 알려졌다. 인간은 페르소나를 통해 삶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바꾸어가며 주변 세계와 상호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한다. 현대사회처럼 복잡하고 개인화된 다매체 사회에서 페르소나가 중요한 개념으로 새삼 떠오르고 있다.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 맞는 여러 개의 가면을 그때그때 바꿔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복수의 가면을 ‘멀티 페르소나’, 즉 ‘여러 개의 가면’이라 부를 수 있다.

멀티 페르소나 직장 생활

멀티 페르소나는 개인의 ‘직업’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다수의 사람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직장에서의 정체성과 일상에서의 자아가 분리되는 정도가 더욱 심화된 듯하다. 2020년 3월 잡코리아가 직장인 559명을 대상으로 ‘멀티 페르소나 트렌드’ 조사를 실시했는데,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에서 87.8%가 멀티 페르소나 트렌드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특히 직장인 중 77.6%는 ‘회사에서의 내

••
**인도의 신 비쉬누(Vishnu)의 10가지
 아바타처럼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즉 단일 자아의 개념은
 사라져가고 있으며 자아의 다중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배경에는
 다채로운 소셜 미디어라는 도구와
 저성장이라는 사회경제적 요소가
 존재한다.**
 ••

모습이 평상시와 다르다.’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40대 이상(71.2%)에 비해 20대(80.3%)와 30대(7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젊은 층에서 멀티 페르소나 현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들의 정체성 전환은 생활 속에서 매우 유연하고도 신속하게 이루어

진다. 예를 들어, 회사원이라는 가면을 언제 쓰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회사 건물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탈 때’라는 답변이 40.6%로 가장 많았다.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며 심리적 구별 짓기를 통해 정체성 전환을 더욱 빠르게 수행한다.

회사의 가면을 넘어 사회의 가면을 다채롭게 착용하기도 한다. 코로나19 이후 고용 불안이 높아짐과 동시에 퇴사와 이직이 빈번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N잡러’를 자처하고 있다. 투잡족을 가리켜 해가 지고 달빛이 떠오를 때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문라이터(moonlighter)라 부르는데, 개인의 삶을 경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가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직장인들이 많아졌다. 과거에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으로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자기 계발과 자아실현을 위해 N잡러를 자처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멀티 페르소나와 자기 연출

SNS별로 다양한 계정을 만들어 취미 등 관심사를 분류해서 다양한 부계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계정을 통해 사람들은 단순 놀이 차원을 넘어 ‘현실 지인’ 외에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해시태그(#)를 통해 연결되고 소통하며 향유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반려견 계정은 반려견의 시점에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계정이다. 실제로 글로벌웹인덱스(GlobalWebIndex)의 시장조사 리포트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 중 98% 이상이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한 사람당 평균 7.6개의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정마다 연출하고 싶은 자아는 다채롭다. 가령 입시·취업 시장에서 드러내고 싶은 학구적이거나 직업에 열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해서 보여주고, 익명성을 바탕으로 거리낌 없이 자신의 솔직한 생각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멀티 페르소나 시사점

멀티 페르소나 트렌드의 발현은 이른바 ‘유연한 자아(flexible self) 시대’의 도래를 알린다. 인도의 신 비쉬누(Vishnu)의 10가지 아바타처럼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즉 단일 자아의 개념은 사라져가고 있으며, 자아의 다중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배경에는 다채로운 소셜 미디어라는 도구와 저성장이라는 사회경제적 요소가 존재한다.

자아의 다중성이 높은 사회는 개인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정체성 보장은 더 이상 공적으로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체성 보장은 더 이상 외부에서, 공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래서 개인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보증해야 한다. 카림에 의하면 다원성은 현대사회의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자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결국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에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스스로를 탐구해야 하는 숙명이 부여된 셈이다. ☹

글쓴이 이수진은 서울대학교 소비자학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에서 소비문화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트렌드코리아>, <더현대 서울 인사이트>(공저)가 있다.



인공지능 저 너머, 선제적 대응 기술



결혼을 앞둔 친구에게 줄 선물을 알아보기 위해
 검색창에 '집들이 선물', '감성 소품', '신혼 가전'을 입력했다.
 그 뒤로 SNS는 물론 유튜브나 포털 광고 창까지 온갖 관련 제품이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알고리즘의 힘인 걸까? 고객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미처 깨닫기도 전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제적 대응 기술' 덕분에 비즈니스의 미래는 놀라운 속도로 달라지고 있다.

글. 이수진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인공지능이 쏘아 올린 변화

인공지능 혁명이 전 세계에 휘몰아치고 있다. 기술은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지만, 지금까지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맞춰 조작을 해야 했다. 인공지능에 힘입어 인류는 필요한 기능을 미리 제공받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처럼 이용자의 사용 흐름을 읽어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술, 나아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표현하기 전에 고객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필요를 깨닫기도 전에 미리 솔루션을 제공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선제적 대응 기술(proactive technology)'이라 한다. 고객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맥락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상품의 타겟이 고객 1명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0.1명, 0.01명이 될 수 있는 시대다.

선제적 대응 기술의 발전 단계

선제적 대응 기술이 소비자와 상호작용할 때의 주도성(proactiveness)을 기준으로 그 적용 수준을 ① 고객의 사전적 대응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②사용자의 맥락에 따라 기능이 자동적으로 맞춤 조정되는 단계, ③사용자의 필요를 예측해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LG전자는 가전제품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해주기 위한 선제적 기능인 '프로액티브 서비스'를 선보인 적이 있다. 미국 시장에서 먼저 시작된 PCC 서비스(Proactive Customer Care Service)는 가전제품 내부에 탑재된 센서로 제품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클라우드 서버로 보내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다. 세탁기가 수평이 맞게 설치됐는지, 온수 호스가 제대로 연결됐는지, 냉



장고 내부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진 않은지, 에어컨 실외기가 과열되진 않았는지 등, 제품의 문제가 감지되면 고객에게 앱·이메일·문자 등으로 알려준다. 이는 가전제품의 현상태와 고장 여부, 진행 정도 등을 파악해 맥락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선제적 대응 기술의 가장 기초적 단계에 해당되는 사례다.

다음으로 맞춤 조정 단계는 사용자에게 맞추어진 기능이 맥락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한다. ITTT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라(IF This, Then That)’라는 조건문의 약자로, 특정 한 조건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행동을 취하라는 의미를 지

니고 있다. 예를 들어 휴가로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사전에 몇 가지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데, 시간에 따라 집안 조명을 켜고 끌 수 있고, 나아가 집 안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휴가지에 있는 사용자에게 즉시 알릴 수 있다. 바로 선제적 대응 기술의 2단계인 맞춤 조정이 적용된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앞으로의 일을 예측해 먼저 조치를 취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실내에서 이산화탄소가 과하게 노출되어 사람이 쓰러졌을 때, 기술이 사람의 자세를 감지해 119에 신고를 한다면 2단계 맞춤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산화탄소의 비정상적 농도가 감지된 상태에서 센

..
인류가 이전 기술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기술의 용도를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정권은 인간의 특권이였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다르다. 오늘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인공지능이다. 과연 인공지능은 우리의 도구로 남아줄 것인가? 적어도 당분간은 인류의 힘이 더 강할 것이다.
 ..

서가 판단한 사람의 표정·자세·호흡 등이 평소와 다른 것을 인식하고 창문을 자동으로 열어 환기를 먼저 시킨다면 이것은 3단계, 즉 예측 수행에 이르는 것이다.

선제적 대응 기술과 복지

선제적 대응 기술은 상품화된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기술은 아니다. 이처럼 공공 영역에서 활용될 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시민들의 생활을 보조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정책 수행을 위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커지고 있다. 2022년 8월, 수원의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돼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세 모녀 모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월 1만 7000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16개월분이나 체납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복지 신청을 하지 않아 비극적인 사태를 맞았다. 이들은 전입신고도 돼 있지 않아 당국에서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선제적 대응 기술의 개념이 적용됐다면 더 빨리 상황 인식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 현황이나 통신비·의료비 연체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서로 연계시킬 수 있었다면, 복지 신청이나 전입신고가 없더라도 제때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선제적 대응 기술 시대에서 필요한 지혜

인류가 이전 기술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기술의 용도를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정권은 인간의 특권이였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다르다. 오늘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인공지능이다. 과연 인공지능은 우리의 도구로 남아줄 것인가? 적어도 당분간은 인류의 힘이 더 강할 것이다. 이러한 혁신적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사용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상이할 것이다. 따라서 이 선제적 대응 기술의 발전 단계를 이해하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



공항이야? 갤러리아? ART IN AIRPORT



인천공항은 거대한 미술관이다. 대한민국 입·출국을 위한 관문이자 근본적인 통로의 역할을 넘어 곳곳에서 만나는 문화 예술 작품은 인천공항을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의 대표 전시를 통해 올가을 예술 감성을 충전해보자.

글. 김시웅 사진. 정지원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즐거움 <궁중잔치> 특별 전시



1 열린 공간에서 관객과 소통하는 <궁중잔치> 전시장 전경
2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을 즐기는 관객

“예상치 못한 공간에 펼쳐지는 공간 예술은 관객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공항이라는 비일상적인 공간에 ‘작가의 방’이 들어서고, 예술은 일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공항을 찾은 여행객을 ‘궁중잔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줍니다. 회화·설치·미디어·조각·드로잉이 혼재되어 있는 김소산 작가의 작품 속을 걷고, 작품을 직접 느끼며 공간 회화의 거점으로서의 예술 공항을 만끽해보세요.”

전시 기획자 최기영

가장 세계적인 우리의 아름다움, 궁중예술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저마다의 재주를 부려 가장 성대하고 아름다운 현장을 완성하는 궁중잔치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인천공항에 펼쳐진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은 한국을 찾는 내·외국인을 위한 공간은 물론 문화 예술, 쇼핑과 휴식을 위한 종합 공간으로서 역할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 한국문화거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용 공간이자 출국 전 휴식을 취하거나 귀국하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장소가 된다. 인천공항은 경기문화재단과 협력해 공공 장소에서 공간 전체를 매체로 삼아 다양한 관객들과 소통하는 특별한 전시, 다양한 형태의 예술 매체를 사용하는 종합 시각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형 공공 예술 전시를 처음 선보인다.

전통적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탁월한 설치 미술가 김소산 작가는 ‘궁중예술’을 주제로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작품을 선보인다. 인천공항이라는 특수성, 규정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열린 공간, 전시에 대한 목적성이 없는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전시가 열린 한국문화거리의 작가에게도 과감한 도전이었다. 공간을 구성하는 개별 전시품이 하나하나의 작품이 되는 동시에 전시 공간 전체가 종합예술의 집합체인 ‘궁중잔치’ 그 자체가 된 것이다.



복합 예술 공간, 궁중과 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혼잡스러움을 피해 4층으로 향하면 의외로 아늑한 휴식 공간이 펼쳐진다. 한국문화거리로 명명된 이곳은 전통 형식의 정자나 기와 담벼락의 장식적 요소로 꾸며져 있는데,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바로 김소산 작가의 <궁중잔치> 전시가 그것인데, 기능적 성격이 다른 궁중과 잔치가 작품을 통해 결합하듯 공항과 전시라는 특별한 경험을 제안한다. 전시장 벽면의 에칭 페인팅 ‘왕관’ 시리즈와 영상 미디어 작품인 ‘스타일’은 동일한 공간을 전혀 다른 속도로 채워가며 전시의 중심을 잡아준다. 입구도 출구도, 그 흔한 ‘작품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라는 제지선조차 없는 전시 공간 양쪽 중앙에는 ‘COSMIC RAY’ 시리즈가 바닥부터 천장을 이으며 마치 생명이 깃든 것처럼 자리하고 있다. 김소산 작가의 오랜 작품 활동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태양의 마차는 전시 공간의 내력벽에 설치되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전시 공간을 채우고 있는 음향 역시 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화려함의 극치인 궁중잔치를 재현한다. 해당 전시장에는 상반기 인천공항 공공 예술 프로젝트였던 ‘15 Benches’에 출품했던 김소산 작가의 벤치를 배치해 관람객들에게 휴식 공간이 되어주고, 작품을

직접 체험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작품 사이를 건너 작품의 형태를 가까이에서 살피고, 작품을 경험하는 즐거움이야말로 인천공항이 추구하는 예술 공항의 면모다. 모두에게 열린 공간에서 누구나 관객이 되고, 모두가 전시의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경험을 이번 전시에서 느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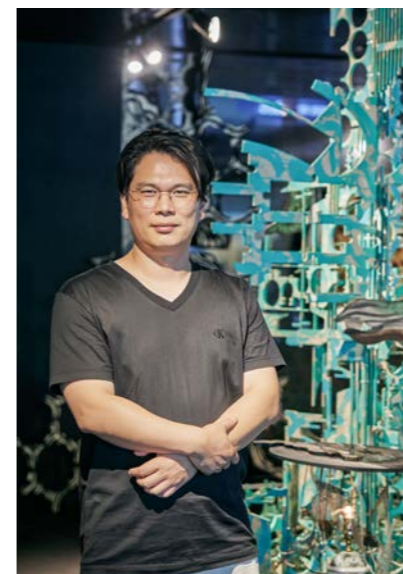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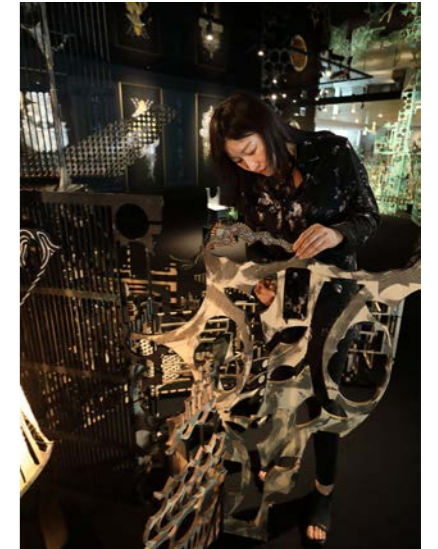
1 섬세한 에칭 작업이 돋보이는 ‘왕관’ 시리즈
2 함께 전시된 김소산 작가의 벤치
3 10월 31일까지 열리는 <궁중잔치> 전시 포스터

CULTURE MINI INTERVIEW

낮선 공간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작품

김소산 작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시 공간을 마주한 여행객이 가던 길을 멈추고, 전시 관객으로 바뀌는 마법 같은 순간은 제게도 특별한 경험입니다. 맨 처음 인천공항이라는 거대한 대상 속 전시 공간이 주어졌을 때, 게다가 삼면이 24시간 개방된 전시 공간은 무모하지만 제게 무한한 확장의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그간 일련의 작업 역시 규정되지 않는 형식이나 표현 방법, 형태를 즐기던 터라 이번 작업을 준비하면서 마치 고대하던 여행을 앞둔 듯한 두근거림을 느꼈죠. 이번 전시의 제목처럼 화려함의 극치인 ‘궁중’과 종합예술의 집합체인 ‘잔치’가 만나 작품을 경험하는 관객에게도 즐거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규정이나 정답이 없습니다. 바라보는 방향마다 다른 형태가 되고, 실 새 없이 바뀌는 미디어 아트를 카메라에 담는 순간 저마다의 작품으로 완성될 테니까요.



규정되지 않은 공간과 예술의 만남

최기영 경기문화재단 수석학예연구원

인천공항은 더 이상 ‘기능적’ 역할에 머물지 않고 ‘문화적’ 요소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경기문화재단이 함께 할 수 있어 의미 있고요. 한 나라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공항에서 누리는 다양한 예술적 경험이 분명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최근 현대미술은 정해진 장르, 공간, 주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술은 이미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인천공항이라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는 예술 작품들이 새로운 경험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간 예술 프로젝트의 첫 번째 전시인 김소산 작가의 <궁중잔치>는 공항과 예술이 만나 새로운 전시 형태로 선보이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항 내 다양한 공간에서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전시를 기대해주세요.



1

극한의 환경이 선사하는 극적인 감동 <남극/북극 출발 → 인천공항 도착>



공항에서 만나는 전시 현장 바로가기

“극지가 품고 있는 숭고한 자연환경과 사라져가는 빙하, 그 안에서 분투하는 극지 연구원 그리고 극지가 작가들에게 어떻게 창조적 영감으로 작용하는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극지 레지던스는 예술가로 하여금 남극과 북극에 머물게 하면서 새로운 영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마주하게 되는 극지 연구소와 레지던스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자연의 경이로움을 다시금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정선희 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2

남극과 북극으로 가는 통로인 인천공항에서 극지의 현장을 담은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펼쳐진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253번 게이트로 향하다 보면 시원스럽게 펼쳐지는 활주로를 배경으로 극지 연구소의 예술 작품을 실은 컨테이너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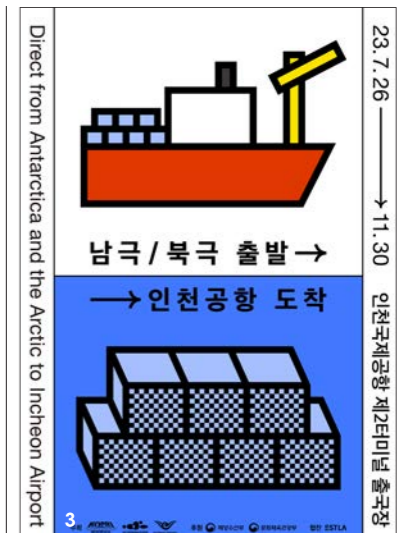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하는 공통분모

특정한 국적도 없고, 24시간 운영되며, 영구히 체류하지 못하고 잠시 머물다 가야 하는 공간. 이 모든 것에서 묘하게 동질감이 느껴지는 두 곳이 바로 극지 연구소와 공항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극지 연구소가 운영하는 극지 레지던스에 참가한 작가의 작품이 인천공항에 상륙했다. <남극/북극 출발 → 인천공항 도착>이라는 전시 제목처럼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극지의 생생함을 전하고자 했고, 남극과 북극에서 출발한 작품이 공항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머물며 여행객을 만난다. 이번 전시는 ‘극지’에 잠시 머물렀던 예술가들의 이야기가 ‘공항’이라는 장소에 놓임으로써, 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해 서로 다른 두 공간이 연결되는 색다른 경험과 그 이면 깊이 있는 사색의 시간을 선사한다.

예술로 소통하는 극지와 공항

이번 전시를 기획한 김효정 큐레이터는 예술가의 눈을 빌

려 극지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연이 말하는 소리를 작품을 통해 들어보라고 말한다. “극지로 떠난 예술가들은 티끌만큼 작은 인간이 극지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주체임을 목격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남극과 북극, 극지 연구소의 역할과 연결되며, 우리 일상과 멀지 않음을 깨닫는 경험을 기대해봅니다.”
공항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극지를 향해하는 쇄빙선과 컨테이너 박스에 예술가들의 작품을 구현한 전시장 디자인은 마음스튜디오가 담당했다. 이달우 디자이너는 비행기 탑승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승객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전시 공간에 ‘이야기’를 담아냈다고 한다. 극지에서 접하는 쇄빙선에서 영감을 받은 전시장 입구 조형물부터 컨테이너 박스에 담긴 작품과 곳곳에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의자를 배치해 작품과 소통하도록 배려했다.



1 극지 연구소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한 예술 작품들
2 남극의 백야를 표현한 김승영 작가의 작품
3 극지의 특별한 경험을 여행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준비된 전시 포스터

공항철도 타고 시티 투어 떠나자!



서울역과 인천공항2터미널까지 61km를 51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공항철도.
그동안 해외여행의 설렘을 즐기느라 눈 돌릴 여유가 없었지만 공항철도는 시티 투어를 하기
딱 좋은 노선이다. 풍성한 볼거리가 가득한 공항철도 명소를 소개한다.

글. 류창희



바다와 함께하는 영종역

씨사이드파크

해안도로를 따라 7.8km 길이로 조성된 대규모 해양 공원. 다양한 체육 시설과 놀이터, 인공 암벽 폭포, 야외 공연장, 조형 분수, 전망대, 조형물로 이루어졌다. 해양 공원답게 물놀이장, 갯벌, 염전 창고는 물론 캠핑장도 갖추고 있다. 특히 왕복 5.6km의 선로를 따라 달리는 4인승 레일바이크가 영종도 명물로 꼽힌다. 전 구간 바다를 옆에 두고 달리기 때문에 탁 트인 개방감이 압권이다. 바다 건너 월미도부터 송도, 인천대교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주소 인천시 중구 하늘달빛로2번길 6 문의 032-456-2973



국제 업무와 레저의 중심지 청라국제도시역

청라호수공원

청라국제도시 내에 있는 호수 공원. 공원 전체 면적은 10.3km²로 국내 호수 공원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공원은 생태 문화 공간, 예술 문화 공간, 전통 문화 공간, 레저 문화 공간 등 4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고, 호수 가운데에는 창포섬, 물새섬, 생태축제의 섬, 플라워 뮤직아일랜드 등 4개의 테마 섬이 인공섬으로 조성되어 있다. 전통 문화 공간에는 경복궁 경회루를 모티브로 지은 청라루가 있으며, 레저 문화 공간에는 음악분수, 어반비치, 플라워 뮤직아일랜드, 멀티 플라자가 있다.
주소 인천시 서구 크리스탈로 59 문의 032-456-2749



휴식과 쇼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김포공항역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 역사, 항공 산업, 항공 생활, 야외 전시, 기획 전시로 나뉘며 국내외의 항공 역사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박물관에는 지금껏 알지 못한 우리 항공사의 보석 같은 전시물과 실물 비행기 16대가 전시되어 있으며, 항공사별 항공기 등록 현황과 미래 항공 기술 발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블랙이글 탑승 체험, 조종 관제 체험, 기내 훈련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찾아도 좋다. 주소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02-6940-3198



문화와 휴식이 있는 마곡나루역

LG아트센터 서울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곳으로, 풍부한 자연환경 속에서 한층 확장된 예술 체험이 가능한 열린 공간이다. 서울식물원 부지에 새롭게 등지를 틀게 된 LG아트센터 서울은 1335석의 다목적 홀인 LG SIGNATURE 홀과 가변형 블랙박스 U+ 스테이지를 보유하고 있다. '튜브, 게이트 아크, 스텝 아트리움'의 세 가지 건축 콘셉트를 통해 예술과 과학, 자연과 시민이 교류하고 공연 예술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의 새로운 문화 예술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6 문의 1661-0017



트렌디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홍대입구역

리스본 캔어리

리스본 캔어리는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정어리 통조림 브랜드 하미레즈의 쇼룸이자 해산물 통조림을 활용한 디시와 페어링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하미레즈, 꼬칸느, 베르뜨 등 다양한 통조림 라인을 판매하고, 통조림을 활용한 디시를 선보인다. 스테디셀러 역시 정어리 플래터. 원하는 통조림 하나를 고르면, 어울리는 치즈와 크래커, 스몰 푸드가 담긴 플래터를 만들어준다. 구운 주먹 감자 위에 특제 마늘 오일과 대파 크림을 올려 먹는 포르투갈 그랜마 메뉴는 와인을 부르는 맛이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5길 9 문의 0507-1372-1984



미디어의 중심을 경험하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다양한 방송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에는 역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방송국이 자리하고 있다. MBC, SBS, JTBC, CJ E&M센터, YTN 등이다. <무한도전>에서 봤던 조형물 '스퀘어-M, Communication'을 보면 여기가 상암동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 조형물은 영화 <어벤저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도 나왔을 정도. 미리 신청하면 방송국 견학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으니 아이와 함께 방송국 투어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서울역

문화역서울 284

KTX 신역사 개통 이후 기차역으로서의 기능이 소멸한 구 서울역사를 원형 복원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 공간이다. 구 서울역사 건물은 1925년 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 건물이자 근대 문화유산으로, 붉은 벽돌과 청동색 돌을 지닌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이다. '문화역서울 284'라는 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했는데, '284'는 옛 서울역의 사적 번호다. 이곳은 사적의 모습과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는 역의 상징성을 살린 공간이다. ☺

주소 서울시 중구 통일로 1 문의 02-3407-3500



재미와 건강 모두 잡았다! 도전해보고 싶은 이색 운동



‘건강이 최고’라는 말은 모두 하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운동. 큰마음 먹고 헬스장에 가도 지루하고 심심하기만 하다. 그럴 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이색 운동으로 눈을 돌려보자. 재미와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색 운동을 소개한다.

글. 류창희

재활 운동 효과까지 번지 피지오

번지 피지오(Bungee Physio)는 1990년대 후반 영국 리버풀에서 시작한 운동이다. 번지 댄스, 에어리얼 댄스, 번지 워크아웃 등으로도 불리는 이 운동법은 허리에 줄을 매고 천장에 걸린 도르래를 통해 반대편에 선 사람이 줄을 잡아당기면 공중으로 떠올라 다양한 동작을 펼치는 것이다.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게 되어 근육과 지방 연소 둘 다 잡을 수 있다. 칼로리 소모도 매우 커 체지방 연소에 효율적이다. 건강하고 탄탄한 몸매와 더불어 각종 관절 통증을 해소해주는 재활 운동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운동이다.



보드 라인을 아름답게 잡아주는 탄츠 플레이

현대무용가 김윤아가 필라테스와 무용, 모던 댄스를 합쳐 개발한 운동. 공연 중 부상을 당한 이후 재활을 위해 배웠던 필라테스와 현대무용에서 힌트를 얻어 만든 운동이다. ‘무용(tanz)’과 ‘놀이(play)’를 결합해 탄생시켰으며, 이를 그대로 현대무용이 기반이 되는 운동이다. 프로 무용수들이 몸을 푸는 방법을 기반으로 발레와 필라테스를 접목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작으로 구성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체형 교정을 할 수 있게 1인용 발레 바를 응용한 탄츠 바와 소프트 볼을 활용한 동작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물속에서 자전거를 아쿠아 바이크

지상에서 타는 자전거와 수중 환경을 결합한 아쿠아 스포츠. 약 130cm의 수심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하는 운동으로, 다양한 손동작까지 함께 하면 전신 운동 효과도 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부상 가능성이 낮고, 관절에 무리가 적다. 허리와 무릎, 골반 건강이 좋지 않은 노약자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유산소 운동은 물론 하체 근육 단련에도 효과적이어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다. 30분만 타도 약 400kcal를 소모할 수 있는데, 이는 지상에서 2시간 정도 자전거를 탔을 때 소모하는 열량과 같다. 근력 향상과 체중 감량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아쿠아 바이크를 추천한다.



스트레스 해소에 딱 파운드핏

강렬한 음악에 맞춰 신나게 두드리는 동작으로 구성된 운동. 2011년 미국에서 개발한 운동으로 드럼을 치는 동작에 요가와 필라테스 자세 등을 접목한 것이다. 드럼 치는 동작을 쉬지 않고 하면서 스쿼트, 런지 등과 같이 하체에 도움이 되는 자세를 함께 하다 보면 45분에 약 900kcal를 소모할 수 있다. 팔, 복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골고루 단련할 수 있어 몸의 밸런스 유지에도 좋다.



짧고 굵은 고강도 운동 크로스핏

복미에서 시작된 크로스핏은 어린 시절 체조 선수 생활을 한 그레그 글래스먼이 고안해 보급한 운동이다. 여러 명이 함께 30분가량 쉴 틈 없이 운동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다. 달리기, 로잉 등의 유산소 운동과 푸시업, 스쿼트 같은 맨몸으로 하는 근력 운동, 역도와 체조 동작을 섞어 매일 다르게 운영하는 점도 특징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운동 강도가 높은 편이고, 무엇보다 체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 다이어터들이 선호하는 운동이다. 🐾





LIVE

기다림

여행을 기다리는 순간, 그 자체로 이미 마음은 요동친다.
 매일 반복되던 일상을 뒤로하고 미지의 내일로 향하려 하면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지만, 비행기 탑승 시간을 기다리며 끊어
 넘치려는 마음을 다시금 다잡게 된다.
 공항이 전하는 낯선 공기에 약간의 흥분과 조금의 과감함이
 더해져 기다림의 시간조차 기꺼운 즐거움으로 받아들인다.





시간

공항의 시간은 일상의 시간과 속도가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천천히 갈 수도, 누군가에게는 일본일초가 아까울 정도로 빨리 갈 수도 있겠다. 느긋하게 공항이 내주는 모든 것을 만끽하는 이는 여행의 시간을 즐기롭게 쓰는 사람일 것이다. 당신의 여행에도 시간을 주자. 공항은 그 자체로 즐거운 여행의 시작이니까.



출발

저기 저 유리문 넘어 진짜 여행이 시작된다. 출발과 떠남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 'departure' 사인보드는 일상을 떠난 여행의 출발을 이야기한다. 입장은 가능하지만 동일한 문으로 되돌아 나올 수 없는 것은 한번 지나간 시간과도 같다. 미련 가득한 어제가 아니라 기대 가득한 내일을 향한 출발의 마음이 가득한 공항의 순간을 만끽해보자.

여행의 시작과 끝, 공항에서 만난 설렘 이야기



공항은 언제나 여행을 앞둔 두근거리는 마음과 여행을 마친 아쉬운 마음이 교차되는 특별한 공간이다. 같은 터미널, 같은 공간일지라도 여행을 떠나는 3층 출국장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1층 입국장의 공기는 다르다.

공항을 오가며 만난 여행자들의 트렁크에 가득 담긴 여행에 대한 기대와 한국 여행에 대한 특별한 추억에 귀 기울여보았다.

글. 안수명 사진. 정지원



네덜란드 잼버리 팀 + 카렌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참석차 네덜란드에서 온 스카우트 단원들이랍니다. 8월 1일부터 시작한 잼버리에 참가하기 위해 총 800명의 대원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더위의 매운맛도 보고, 참가했던 158개국 스카우트 대원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음식을 나누고 잼버리 패치를 교환하는 문화 교류의 날(컬처데이)이었어요. 공식 대회를 마치고 인천공항에서도 각국 대원들을 만날 수 있어 마지막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기혁

“저는 이제 막 호주에서 귀국했습니다. 구세군(The Salvation Army)으로 활동 중인데, 이번엔 호주로 SALT(구세군 리더십 트레이닝) 필드 스터디를 다녀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밤 비행기로 출국했을 때만 해도 이번 봉사 활동과 현지 문화 탐방 등 총 12일에 걸친 일정에 대한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베이징 경유를 포함해 총 14시간의 비행 끝에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스르륵 풀리네요. 공항에 마중 나와준 동료 덕분에 더욱 반가웠고요.”



김소민+박규혁

“코로나19 이후 둘이 떠나는 첫 번째 여행이에요. 목적지는 세부입니다. 그동안 여행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떠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행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도 정말 오랜만에 와요. 특히 제2여객터미널이라고 해서 출발 시간보다 일찍 왔어요. 공항 곳곳에 실내 정원이라 휴식 공간, 예술 작품이 많아서 좋아요. 여행의 시작은 공항부터니까 비행기 탑승 전까지 열심히 구경하고 인증샷도 많이 남길게요.”

인도 여행, 기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에어인디아리미티드 조두환 지점장



아시아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항공사라는 역사를 지닌 에어인디아는 현재 인도의 수도 뉴델리로 주 4회 운항하고 있다. 18년 차 조두환 지점장은 오늘도 에어인디아를 대표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미소와 진심을 다해 승객을 맞이하고 있다.

Q 소속 항공사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에어인디아(AIR INDIA)는 인도의 전설적인 기업가인 JRD 타타(JRD Tata)에 의해 1938년 타타항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도 최초의 상업 항공 운송 서비스로 그 후 인도 항공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1946년 사명을 에어인디아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1953년 인도 국영 항공사로 편입되었으며, 2022년 68년 만에 민영화되어 타타 그룹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이는 곧 에어인디아의 정신을 지키면서 완전히 새롭게 탄생할 에어인디아를 의미합니다. 현재 새로운 모기업의 지원하에 5년간의 주요 혁신 로드맵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Q 새로워질 에어인디아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늘에 있는 당신의 궁전’이라는 슬로건을 기억하고 세계 최고 클래스 프리미엄 항공사로 거듭나려 합니다. 금년 2월 보잉과 에어버스에 함께 470대라는 역사적 규모의 최신형 항공기를 발주했으며, 이 항공기는 올해 말부터 승객과 만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항공 서비스의 복귀, 비행 및 지상 기능 전반에 걸친 인재 추가, 기술의 신속한 업그레이드 및 고객 관리 이니셔티브의 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에어인디아를 타고 인도로 가는 여행의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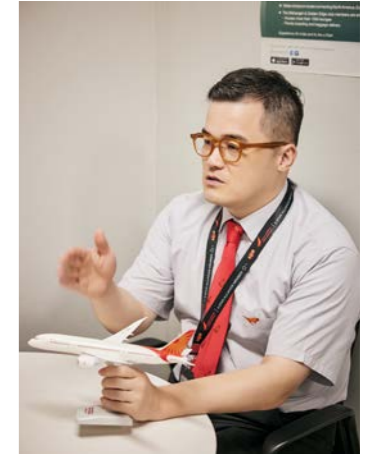
에어인디아는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로 주 4회 보잉 787



드림라이너 직항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향하는 여행객의 설레는 마음을 이해하며 기내에서부터 인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도 현지에서 만든 기내식 체험, 모두 인도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승무원, 인도의 특색 있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내 인테리어 등이 그것입니다. 또 승객을 위한 무료 수화물을 2개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들이 수화물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고요. 카운터에서 진행하는 비즈니스클래스 업그레이드 프로모션도 놓치지 마세요. 저렴한 요금을 지불하고 인도 특유의 극진한 비즈니스 클래스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Q 지점장님과 에어인디아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인도 특유의 문화가 매력적이었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 중에 인도계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항공 분야 역시 인도의 잠재성을 보고 대한민국에서 에어인디아를 이끌고 싶어 입사하게 되었죠. 비행이 있는 화·목·토·일요일의 경우 여객,



화물, 승객 관리에 집중하며, 일반적으로는 서비스와 직원 관리와 항공 운영에 대한 편의 및 보안, 안전 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에어인디아는 최근 로고도 변경하고 기내·여객 서비스 전반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달라질 에어인디아를 기대해주세요.

Q 오랜 항공사 근무 경험으로 해외 곳곳에 다녔을 텐데, <More&Beyond> 독자에게 추천해줄 여행 장소가 있나요?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본 결과 나라마다 매력이 달라 추천하기 어렵지만 그중에서 인도 북부 지역인 레(Leh)는 어떨까요. 최근 방송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2>의 마지막 여행지로 소개되었던 곳으로 히말라야산맥 근처에 위치해 많은 이들이 인도의 스위스라고 표현합니다. 판공초호수를 비롯해 때 묻지 않은 자연과 세계 최고 높이의 히말라야산맥을 가까운 곳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산지역이라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곳의 경관을 보는 순간 고산병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기존 인도 특유의 문화와 느낌이 다른 곳으로 새로운 인도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생 항공사를 위한 34년 항공 운영 노하우 그레이트베이항공 김중기 인천공항지점장



2023년 1월 홍콩과 서울(인천공항) 노선을 개설한 신생 항공사, 그레이트베이항공이 홍콩 여행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그 뒤에선 오랜 실무로 다져진 항공운영 전문가 김중기 지점장이 슈퍼맨처럼 여객기와 고객을 위한 지상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글. 김시웅 사진. 정지원



Q 소속 항공사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레이트베이항공(Greater Bay Airlines)은 심천 동하이 항공 창립자이자 그레이트베이항공 회장인 왕 초 바우(Wong Cho Bau)가 2020년에 창립한 홍콩 기반 항공사입니다. 2021년 10월에 AOC(운항 증명 승인서)를 취득하고, 2022년 2월 항공 운송 면허증 취득, 7월 홍콩과 방콕을 잇는 기념적인 첫 취항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홍콩과 서울을 잇는 노선을 2023년 1월 17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트베이항공은 홍콩국제공항을 글로벌 항공 허브로 내세워 아시아 전역의 104개 목적지로 운항하는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 그레이트베이항공을 주목해주세요.

Q 코로나19 이전 홍콩은 언제나 국제 노선 인기 1위였습니다. 그레이트베이항공이 그 영광을 다시 찾아오는 건가요?

그레이트베이항공은 'value 항공'이라 자부합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편안한 기내 서비스로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확보한 채 홍콩으로 가는 4시간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보잉 737-800 항공기로 기내 좌석 공간이 넉넉하고, 다양한 운임 옵션을 운영해 수화물 서비스, 좌석 선

택, 선불 기내식 등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 주 7회 매일 홍콩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2024년엔 보잉 737 MAX9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5월과 6월 홍콩 공항관리국이 후원하는 월드오브위너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한 홍콩 왕복 항공권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응모하시고, 실제 항공권에 당첨되어 그레이트베이와 함께 홍콩을 즐기셨습니다.

Q 신생 항공사인 그레이트베이에 합류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요?

태국 국영 항공사인 타이항공에서 1986년 항공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조종사, 캐빈크루, 정비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항공업계 전반을 경험했고, 특히 지상직 관리자로 항공업계에 종사하면서 숙련된 노하우를 신생 항공사의 A to Z에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항공 산업 현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레이트베이항공의 홍콩 본사 직원들 역시 케세이퍼시픽항공 등 유수의 항공업계 베테랑들이 모여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고요.

Q 항공사 공항지점장의 역할과 지점장님만의 특별한 노하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 역할은 그레이트베이항공이 인천과 홍콩을 오가며 생기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을 예측하고, 상황 해결과 사전 예방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특히 항공기의 안전 운항과 정시 운항은 고객의 편의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늘 신경을 씁니다.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협업하는 조업사 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고요. 물론 친절과 겸손은 오랜 항공업계 종사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곧 그레이트베이항공의 얼굴이라 생각하며 늘 배우는 자세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Q 지점장님이 가장 사랑하는 여행지가 궁금합니다. <More&Beyond> 독자에게 추천할 나만의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사실 많은 이들이 항공사에 근무하는 제게 추천 여행지를 묻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언제나 제 마음속 1등은 홍콩이고, 차순위는 태국 푸껫입니다. 특히 찬 바람 불기 시작하고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한국의 겨울에는 푸껫만 한 곳이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자연,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 등은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시니까요. 가족과 함께 인근 피피섬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면 푸껫과는 또 다른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원시림을 즐길 수 있는 힐링 여행지입니다. 너무 흔한 여행지라고 놓치지 않지만, 그만큼 검증된 곳인 만큼 울겨울 홍콩과 푸껫으로 여행 가시길 권합니다. ☺

내 얼굴이 신분증이 되는 안면 인식 '스마트패스'로 출국하세요

항공사 체크인 수속과 수화물 위탁까지 완료했다면 출국장 입장이 기다리고 있다.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 여권, 탑승권 챙기기에 여념 없던 당신, 이제는 안면 인식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출국할 수 있다.

글. 안수명

전용 앱에서 등록하는 스마트패스

앞으로 인천공항에서는 여권, 탑승권을 꺼낼 필요 없이 안면 인식 정보로 빠르게 출국할 수 있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출국 여객이 안면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출국장, 탑승구 등을 안면 인식만으로 통과하는 서비스로 국내 공항 최초 승객의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다. 지난 7월 말부터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본

격 도입하고, 7월 10일 사전 등록에 필요한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오픈했다.

사전 등록을 원하는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ICN Smartpass'를 검색해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또 공항의 셀프체크인 무인안내기(키오스크)에서도 서비스 이용 30분 전까지 등록 가능하다. 사전 정보를 등록한 여객은 매년 여권,

스마트패스

여권, 탑승권, 생체 정보를 결합한 하나의 ID(One ID)로 모든 출국 프로세스 대체



스마트패스 이용 방법



탑승권을 꺼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고, 등록 여객 전용 라인 이용도 가능하다. 또 비행기 탑승구에서도 탑승권 제시 없이 얼굴 인증만으로 탑승할 수 있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델타항공, 제주항공, 에어프랑스, 진에어, 네덜란드항공, 티웨이항공 적용 가능) 스마트패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스마트패스 ID 등록과 탑승권 등록, 백드랍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스마트패스 등록 여객도 출국 시 탑승권과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항공 보안 수준 높이는 스마트패스

공항은 국가의 관문이자 항공 보안이 중요시되는 곳인 만큼 편리한 스마트패스의 정확도와 높은 수준의 보안 강화 인식률이 관건이다. 인천공항의 스마트패스는 국제 표준 기술을 적용했고, 정확한 안면 인식과 본인 인증을 통해 보안 안정성을 강화한다. 사람의 생체 정보는 고유한 특성으로 위변조·복제가 불가능해 스마트패스 적용으로 인천공항 항공 보안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패스는

최초 안면 인식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이용 가능하다. 팬데믹 이후 많은 공항에서 비접촉식 출입국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 애틀랜타, 싱가포르 창이, 일본 나리타 등 다수의 공항에서 안면 인식을 통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시행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2022년 발표한 설문 자료(GPS)에 따르면 답변자의 88%가 전반적인 생체 인식 프로세스에 만족하고, 75%가 여권, 탑승권보다 생체 인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ATA에 따르면 생체 인식 출국 서비스 도입 시 출국 소요 시간이 체크인의 경우 10%, 탑승은 4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스마트패스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면 여객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 GPS(Global Passenger Survey): IATA가 매년 전 세계 약 1만 명의 여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 조사

추석여행

석 연휴에는

양이 아닌 보름달 소원 빌러

행을 떠나볼까요?

운은 덤이예요~

SURVEY

올해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를 앞두고 '2023 추석 연휴 해외여행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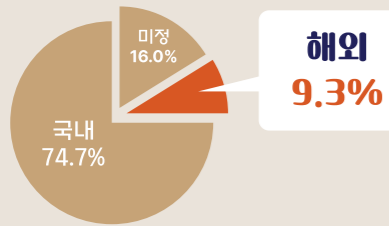
조사 규모: 만 18세 이상 내국인 중 최근 5년 이내 인천공항 출국경험자 1,336명
 조사 기간: 2023.8.7~8.12
 조사 방법: 온라인 패널 조사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산업기술연구원

과거 추석연휴기간 인천공항에서 가장 많이 출국한 목적지는 어디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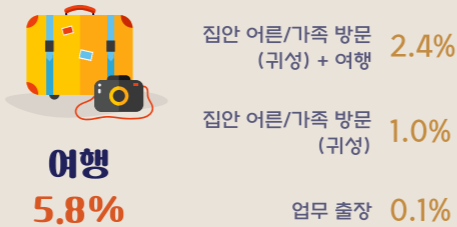
*인천국제공항 항공통계실적 기준, 휴일 하루 전 출국부터 집계한 여객 수
 ** 2020년, 2021년은 코로나가 가장 심한 시기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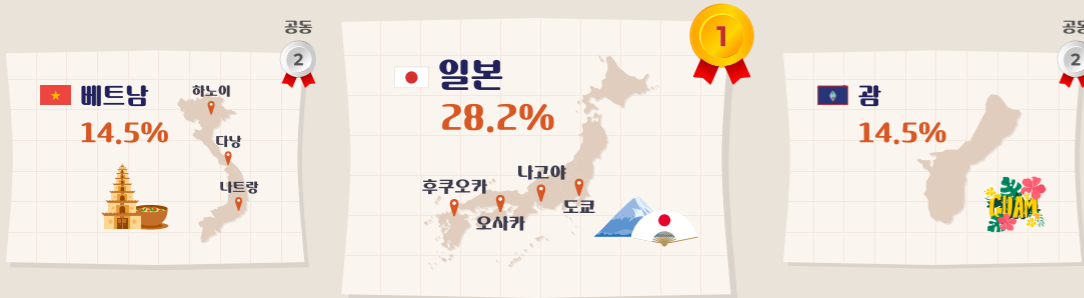
추석 연휴 기간, 어디에 있을 예정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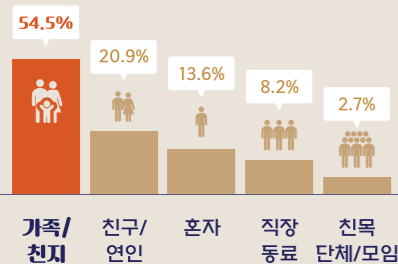
해외에서 무엇을 할 계획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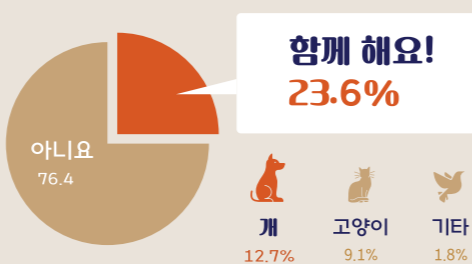
해외 여행은 어디로 가세요?



해외 여행은 누구와 함께 떠날 예정이세요?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 여행을 떠날 예정이세요?



코로나 전(2018~2019년) 추석 연휴에는 인천공항에서 가장 많이 출국한 목적지는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중국, 대만) 지역이었습니다. 2022년 코로나 방역 완화 시기 추석 연휴에는 동남아(베트남, 태국, 필리핀) 지역으로 가장 많이 출국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남아 국가들이 코로나 규제 완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였고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입국을 허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사회와 환경에 온기를 더한다 인천공항 합동 자원봉사단 V-엠배서더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인천공항의 홍보대사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펼친다는 의미의 V-엠배서더.
지난 1년, 열심히 활동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보았다.

글. 류창희



ICN V-엠배서더란?

인천공항 합동 자원봉사단은 정부 기관, 항공사, 상업 시설, 자회사 등 21개 기관에서 각 기관장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50명으로 구성됐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ICN V-엠배서더 1기가 활동한다. 그동안 취약 계층 거주 환경 개선, 연탄 나눔, 해외 봉사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해왔다.



인천공항 합동 자원봉사단(ICN V-엠배서더, 1기)

구분	인원	소속(인원)
공사	14	인천국제공항공사(14)
정부 기관	7	경찰단(2), 농림축산검역(2), 출입국-외국인청(1), 세관(2)
항공사	7	대한항공(2), 아시아나(2), 카타르(1), 에어서울(1), 델타(1)
상업 시설	12	경복궁(2), 현대백화점(2), 신라(2), 롯데(2), 시티(2), 신세계(2)
자회사	8	보안(2), 운영 서비스(2), 시설 관리(2), 에너지(2)
상주 업체	2	페덱스코리아(2)

ICN V-엠배서더 활동 내역

활동명	시기	지역(인천시)	활동 내용
으랏차차 영양밥차	22.9	부평구	소외 계층 대상 식료품 키트 나눔
산넘고 물건너	22.10	강화군	고구마 농가 일손 돕기
다함께 김치!	22.11	중구	겨울맞이 지역 내 김장 나눔 봉사
쪽방촌 산타들	22.12	동구	쪽방촌 일대 연탄 및 식료품 나눔
견생역전 팻밀리(2회)	23.3	계양/남동구	유기견 보호소 활동·물품 지원
영양가득 밥차	23.5	부평구	소외 계층 대상 무료 급식 봉사
슬기로운 농촌생활	23.6	강화군	포도 농가 일손 돕기

ICN V-엠베서더 주요 활동 알아보기



다함께 김치! / 2022년 11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9년부터 지역 사회 소외 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매년 김장김치 나눔 활동을 진행해왔다. 인천공항 합동 자원봉사단과 영종·영종1동·용유·운서동 주민자치회가 함께 김장 김치 17,000kg(8,500포기)을 담고, 인천시 전역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 계층 1420가정과 사회복지 시설 12개소에 전달함으로써 봉사와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합동 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건강하고 선한 만남 공동체랍니다.”

인천공항 시설관리(주) 철도시설사업소 철도지원팀 이현경 과장

봉사를 통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즐거움, 같이 노력하고 땀 흘리는 성취감으로 상주 직원간 유대감이 생기는 것이 합동 봉

사단의 매력이라고 전한 이현경 과장. 업무와 별개로 각자의 시간을 들여 봉사를 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각자 다른 분야에서 일하며 알게 된 공항 이용 팁을 공유하기도 해 공항이 건강한 일터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합동 봉사단과 지역 주민이 모두 모여 다인원 김장 봉사를 한 일이 기억에 많이 남고, 이웃을 위한 작은 노력이 모여 큰 결실을 맺게 되어 좋다고 전했다.

따뜻한 겨울 선물 / 2022년 12월

인천공항 합동 자원봉사단 V-엠베서더가 갱이부리말 산타로 변신했다. 인천 동구 안석동 일대는 소설 <갱이부리말 아이들>의 무대로 소위 '쪽방촌'이라 불리며 현재까지도 30여 가구가 연탄으로 겨울을 나고 있는 곳이다. 합동 봉사단은 2000장의 연탄과 함께 직접 포장한 식료품 꾸러미(즉석밥, 반찬, 국 등) 300개를 전달함으로써 추운 겨울 따뜻한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더했다. 봉사단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소외 계층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다.



견생역전 펫밀리 / 2023년 3월

3월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인천시 일대의 유기견 보호소에서 동물권 보호 및 유기 동물 문제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한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1차 활동을 진행한 인천 계양구 아크보호소는 약 3년 전 불법 개 농장이었던 곳을 동물권 단체에서 인수해 유기견 보호소로 바꾼 대형견 보호소다. 2차 활동이 진행된 인천 남동구 산수의천사들 보호소는 대·소형 유기견 및 유기묘 보호소이다. V-엠베서더는 보호소 견(묘)사 청소·사료 배분·산책 봉사 등의 활동과 더불어 견(묘) 사료 등 보호소 필요 물품을 지원했다.



“봉사 활동을 통해 타인에게 도움을 주지만, 사실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봉사자 자신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김정우 주무관

제2여객터미널에서 검역 탐지견과 함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축산물, 과일, 종자 등 국경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김정우 주무관. 자원봉사를 통해 평소 접점이 적은 이웃과 만나거나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이 좋았다고 한다. 특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업무를 하는 합동 단원들이 봉사단으로 뭉쳐 하나의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역할을 소화할 때 큰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하며, 합동 봉사단의 의미를 전했다. 다양한 봉사단 활동 중에서도 유기견 봉사 활동이 기억에 남는데, 열악한 환경이나 어려운 조건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 견사 청소 및 사료 급여, 유기견과 함께 산책하며 보낸 하루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영양가득 밥차 / 2023년 5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인천시 부평구에서 소외 계층(독거노인) 대상 무료 급식소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 활동이 진행된 인천 부평구는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인천시 관내 10개 군·구 중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V-엠베서더는 부평6동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식재료 준비·배식 운반 및 수거·잔반 처리 등의 무료 급식소 활동과 더불어, 떡·과일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 키트를 지급해 노약자 약 600명에게 따뜻한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전했다.

슬기로운 농촌생활 / 2023년 6월

수확철 일손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도 농가를 위해 V-엠베서더와 농협 임직원이 나섰다. 인천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포도는 장마가 오기 전에 봉지를 씌우는 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매년 6월 말이면 포도 농가는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V-엠베서더는 포도 봉지 씌우기 작업에 참여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합동 봉사단은 선한 의도의 봉사 활동뿐 아니라 공항 상주직원들의 소통의 장입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여행자동차통관사무관실 김계홍 주무관

공항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타 분야의 상주 직원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는 없었는데, 합동 봉사단을 통해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상대의 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김계홍 주무관.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같이 땀 흘리고 호흡을 맞추면서 어느새 가까운 이웃사촌이 된 느낌이며, 이런 어려움, 교류, 소통을 통해 다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 6월 포도 농가 일손 돕기 활동 시 농장주인이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할 지경인데 이렇게 단체로 봉사 활동을 와주니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특히 뿌듯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ESG MINI INTERVIEW

인천국제공항공사 ESG경영팀 김혜진 대리



봉사단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기억은 무엇인가요?

공사 담당자로서 봉사단원들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때, 활동을 거둬주며 단원들이 가까워지는 게 눈에 보일 때, 봉사 현장에서 수혜 대상과 직접 소통할 때 가장 감사하고 보람칩니다. 최근에 했던 6월 농촌 일손 돕기 봉사 활동 당시, 아침 일찍부터 강화도로 이동해 포도 농가 일손 돕기 작업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사무실을 벗어나 잡다한 생각 없이 단원들, 농가 주인분들과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포도 봉지를 씌우고, 힘들 땀 새삼 시간 가지며 작업하니 재충전도 되고 다 같이 어우러질 수 있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V-엠베서더의 자원봉사 활동 계획과 대상 지역은 어떻게 정하나요?

활동 기획 및 봉사자 모집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격월 1~2회 주기로 운영합니다. 콘텐츠는 시기별 맞춤형으로 선택하고요. 가령 가정의 달 5월에는 어르신 무료 급식소를 찾아가거나 명절에는 식료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연탄을 나누는 식입니다. 대상 지역은 지역 사회 나눔 실천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인천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활동 내용에 따라 장소 섭외와 답사 등을 거쳐 확정합니다.

향후 글로벌 봉사단 파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9월 중순 몽골 대상 상주 직원 합동 글로벌 봉사단 26명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단원은 합동 봉사 참여 실적(합동 봉사단 우대), 기타 외부 봉사 실적, 공항 근무 기간, 지원서 내용, 소속·연령·성별 적정 인원 분배 등을 종합 고려해 공정하게 선발했습니다. 사전 교육 및 준비를 거쳐 9월 11~16일 5박 6일간 몽골로 파견할 예정입니다. 몽골에서는 국립공원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과 저소득층 가정 대상 게르 구축 및 겨울나기 물품 지원, 마을 시설 개보수, 마을 주민 문화 교류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공항 내외부 직원들에게 합동 봉사단을 한마디로 어필해주세요

공항에 다양한 활동 단체가 있지만 다양한 기관이 공항 내·외부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단체는 우리 봉사단이 유일합니다. 대내적으로는 상주 직원끼리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결속력을 다질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근무 공간(공항)을 벗어나 지역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합동 봉사단은 한마디로 ‘특별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동 봉사단에 관심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합류할 수 있나요?

현재 활동 중인 합동 봉사단 1기는 12월에 임기 만료됩니다. 2기는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상주 직원을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항 속 쇼핑 맛집을 찾아라 인천공항 터미널 핫 스팟



여행 떠나기 전 깜빡 잊고 못 챙긴 물건이 있다면? 면세 구역 만능키, 마지막 편의점 장바구니를 채우고 싶다면 주목하자. 각 여객터미널별 알뜰살뜰 쇼핑력 채워줄 쇼핑 맛집을 소개한다.

글. 안수명 사진. 정지원



제1여객터미널 지하 1층

제2여객터미널 지하 1층



안경점

여행을 떠나는 당신 뜨거운 태양을 가릴 선글라스는 챙겼지만, 콘택트렌즈나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을 깜박 했다면, 혹은 부모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길, 돋보기를 두고 왔다면 지체 없이 여객터미널 지하 쇼핑구역으로 달려가자. 안경, 선글라스 모두 도수 렌즈 교체가 필요하다면 시간이 제한적인 여행객을 위해 렌즈 작업 역시 30분이면 완성되니 안심하고 방문 상담해보자. 깨끗하고 선명한 시야를 책임질 시력 교정용 안경, 선글라스, 콘택트렌즈는 여행의 질을 높여준다.

글라스&렌즈스토어

위치 제2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지하 1층 동편

영업시간 07:00~21:00

문의 032-743-3415



알로

위치 제1여객터미널 지하 1층 서편

영업시간 10:00~19:00

문의 032-743-5490



올리브영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쇼핑 매장을 물으면 주저 없이 ‘올리브영’을 꼽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뷰티 쇼핑목록을 한눈에 살필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 식품, 생필품은 물론 공항의 특성에 맞춰 라면이나 즉석밥 등 맛있는 간편식까지 출국을 앞둔 여행객들의 캐리어를 채울 다양한 품목이 가득하다. 특히 올리브영 앱을 통해 화장품, 건강용품, 미용 소품, 생활용품, 여행 소품 등을 주문하고, 공항 내 올리브영 매장에서 간편하게 픽업하는 ‘오늘드림’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 온라인 물 혜택을 그대로 챙길 수 있다.

위치 제1여객터미널 지하 1층 서편

제2여객터미널 지하 1층 중앙

영업시간 07:00~21:30

문의 (T1) 032-743-5290

(T2) 032-743-5292



TIP

전 세계 유일, 공항 복합 문화 축제 2023 SKY FESTIVAL

올해로 19회를 맞는 스카이 페스티벌은 공항과 음악·문화·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축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허브 공항이자 글로벌 스탠더드 공항으로 손꼽히는 인천공항을 함께 만들어온 공항 상주 직원과 이용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매년 가을 개최하고 있다.

정리. 편집실



올가을, 인천공항은 축제로 물든다

2004년부터 개최된 인천공항 대표 ‘뮤직&아트 페스티벌’인 스카이 페스티벌(SKY FESTIVAL). 이번 페스티벌은 하늘 길이 닫혔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공항 운영 완전 정상화 선포까지 인천공항을 성원해준 여객분들과 공항상주 직원, 지역 사회 주민과 축제 방문객 모두를 위한 열린 축제다.

스카이 페스티벌의 메인 이벤트인 콘서트는 최정상급 K-POP 아티스트,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크로스오버 가수들의 공연으로 채워진다. 모든 공연과 부대 행사는 무료이며, 콘서트 공연 입장권은 온라인 예매 사이트 티켓링크를 통해 사전 예매 해야 한다. 9월 17일 열리는 어린

이 사생대회는 ‘내가 그리는 공항 이야기’를 주제로 온라인 사전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심사를 거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상을 포함해 30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음식의 푸드트럭이 참여하는 푸드 페스타와 공연 관람 및 스태프 투어 참여 대상자를 추첨해 항공관, LG스탠바이미 TV, 백화점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은 2023 스카이 페스티벌 기간 중 응급 버스, 화장실, 유실물 보관 등 편의 시설을 운영하고 행사장 셔틀버스와 행사장 곳곳에 안내 인력을 배치해 관람객 편의 및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

문의 스카이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2023skyfestival.com)

주요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주요내용
콘서트	K-POP 9월 16일 19:30	자우림, 유노윤호, 보이넥스트도어, 하이키, 스테이씨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내 최정상급 K-POP 스타들이 총출동
	CLASSIC&MUSICAL 9월 17일 17:30	어반팝스오케스트라, 뮤지컬 배우 민우혁,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바다, 성악가 이동신 출연
부대 행사	전시/체험 /이벤트	인천공항×카카오 브릭 체험존, 새활용 브랜드 니올 팝업 매장, 핸드 프린팅 기네스 도전 이벤트, 스카йма블 게임, 원데이 아트 클래스, 여행네컷 포토존, 플리마켓



비행기 비상구 정책, 이렇게 달라져요



최근 아찔한 항공기 문 열림 사고로 기내 비상구 좌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늘은 달라지는 비행기 비상구 좌석 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글: 류창희

아찔한 비상구 사고, 왜?

이코노미 클래스를 이용할 때면 유독 앞뒤 간격이 넓어 편하게 갈 수 있는 좌석에 눈길이 간다. 특히 앞 공간이 다 비어 있어 다리를 마음껏 뻗어도 되는 좌석이기도 한 비상구 좌석은 위험 상황 발생 시 승객들이 대피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넓게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만 두 차례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비상구 좌석 규정에 대한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다. A321-200기의 문제 자리는 '31A' 좌석으로 승객이 앉은 상태에서 비상구 레버 즉 문손잡이에 닿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가까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비상구 문을 여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기종의 비상구 좌석은 2개 좌석이 배치돼 비상구와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반면, 31A의 경우 나란히 3개 좌석이 배치되면서 비상구에 더 밀착된 상황인 것.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기종인 A321-200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항공편 만석일 때도 적용된다. 판매를 중단한 좌석은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11대)의 26A 좌석과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3대)의 31A 좌석이다.

비상구 좌석, 소방·경찰·군인에 우선 판매한다

지난 7월 31일부터 비행 중 개방이 가능한 일부 항공기 비상구 옆 좌석을 경찰관, 소방관, 군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사전 온라인 예매 시 비상구 좌석을 선택하게 되면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제복 공무원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고지가 뜨고, 현장에서 신분증을 확인해 배정하게 되는 것. 현장 판매 시에는 제복 공무원에게 우선 판매하되, 이 후에는 일반 승객에도 판매한다고 한다. 제복을 입은 공무원에게 우선 배정되는 좌석은 국내 항공사에서 운용하는 3개 기종(에어버스 320, 에어버스 321 CEO, 보잉 767) 38대 항공기 중 비상문에 인접한 94개 좌석이다. 참여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에어로케이 등 4개 사다. 다만 비상구 레버가 좌석과 매우 밀접한 23개 밀착 좌석은 우선 배정이 안 돼도 공석으로 운항한다. 현재 우리나라 여객기 355대 중 236대는 잠금장치가 있어 비상문을 열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99대는 저고도에서 개방하는 비상문을 장착하고 있고, 이 중 61대는 모든 비상문에 승무원이 착석하고 있어 돌발 상황 발생 시 바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나머지 38대의 152개 비상문 중 94개 비상문에는 승무원이 착석하지 않아서 돌발 상황 시 대처가 어려워 비상문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근본적인 안전 강화 방안 필요

사고 기종의 제작 당국인 유럽항공안전처, 에어포스사와 협의해 비행 중 열림 방지 및 사전 경고 장치 설치 등을 포함해 근본적인 안전 강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탑승객 대상 항공 보안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비상문 조작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점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비상 행동을 식별하고 감시하는 행동 탐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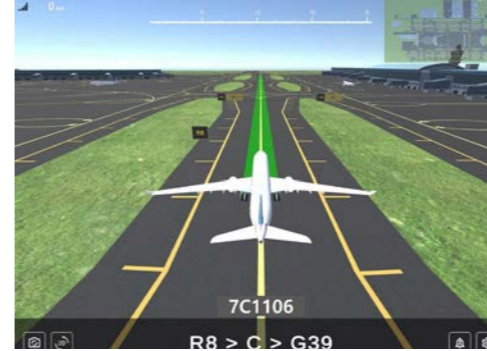
미래형 스마트 면세 쇼핑 플랫폼 개발 박차

인천공항 쇼핑의 핵심인 면세점이 더욱 스마트해진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입점 면세 사업자 5개사(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경복궁면세점, 시티플러스)와 '미래형 스마트 면세 플랫폼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024년 하반기 오픈을 목표로 하는 통합형 온라인 면세 쇼핑 서비스는 온라인 면세 쇼핑을 이용하는 여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편리한 쇼핑 플랫폼을 위해 공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상품 정보 제공, 디지털 정보 연동을 통한 페이퍼리스 쇼핑 등 인천공항이 축적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면세 쇼핑 환경을 구현하고, 전 세계 공항 면세 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마약 근절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노 엑시트 캠페인은 최근 불법 마약류 유통 및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약 중독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일상 속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경찰청과 마약 퇴치운동본부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 참여자는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 사진을 촬영해 이를 SNS에 게시하거나 언론 보도를 통해 홍보한다. 캠페인에 동참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세계 최초 항공기 지상 이동 3D 내비게이션 개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 공항 중 최초로 항공기 지상 이동 3D 내비게이션(A-SMGCS Onboard)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했다. 이는 기존 관제사에게만 제공되던 공항 내 지상 교통 상황, 이동 경로, 각종 위험 경보 등의 정보를 항공기 지상 이동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3D 형태의 실시간 내비게이션 정보로 취항 항공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시스템 시험 운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데 이어 올해 7월에는 항공기의 실제 운항 과정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해 최종 검증 작업을 마무리했다. 항공기 지상 이동 3D 내비게이션 분야에서 인천공항이 세계적으로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스템 도입에 박차를 가해 국제 표준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인천공항에서 만나는 화려한 꽃의 향연

<2023 인천국제공항 국제화예작가 특별전시>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11월 30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꽃, 세상에 피어나다 (The Flowers Bloom to the World)'로, 전 세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주요 국제 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화예 아티스트 2인(타마스 메조피(헝가리), 캘빈 리(대만))이 참여한다. 이번 전시는 새로운 만남과 여정이 시작되는 '공항'이라는 상징성에 중점을 두어 기획되었으며, 전 세계 공항 최초로 공용 공간에서 화예 작품을 선보여 공항 방문객 누구나 손쉽게 세계 최고 수준의 화예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인천공항만의 새로운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



인천공항, 잼버리 대원 위해 ‘특별 출국지원대책’ 시행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마치고 귀국하는 잼버리 대원들이 한국의 정을 느끼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야간 시간대 공항 체류 대원 위해 4000명 수용 가능 전용 대기 공간 제공과 전용 출국시설 운영, 안내 인력 배치와 휴식을 위한 시설을 보강했다. 8월 15일까지 약 3만 4000명의 잼버리 대원이 인천공항을 이용해 출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국 시 필요 물품(생수, 담요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여객터미널 상업 시설의 24시간 운영을 확대하고 안내 인력 약 70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인천공항, 위기 딛고 공항 운영 완전 정상화 선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하계 성수기 기간 일 평균 18만 명 이용으로 2019년 대비 85% 회복과 안정적인 공항 운영 성과를 냈다. ‘다시 날자 인천공항! Ready, Set, Fly!’ 슬로건처럼 무결점 공항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공사 이학재 사장은 “7만여 공항 상주 직원이 합심한 결과 하계 성수기 무결점 운영 성과를 달성하고 특별출국지원대책을 통해 출국하는 잼버리 대원들에게 한국의 따뜻하고 친절인상을 남길 수 있었다”며 “공항 운영 완전 정상화 선포를 통해 공항의 시설 및 운영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여객분들께 더욱 수준 높은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신규 여객 유치를 위한 ‘인천공항 환승 투어’ 마케팅 실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8월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KCON LA 2023’에 참가해 신규 여객 및 환승 수요 유치를 위한 현지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세계 각국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인천공항의 네트워크 강점 및 환승객 대상 무료 환승 투어(당일 코스)와 케이-스톱오버(K-STOPOVER) 프로그램(1박 이상 코스)을 홍보했다. 또 인천공항 SNS를 활용한 팔로잉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열린 ‘2023 미서부 K-관광 트래블마트’에 참가해 현지 여행사 대상 1:1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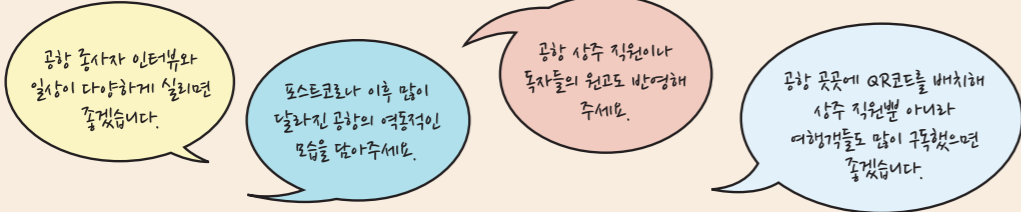


인천공항, 친환경 지상 조업 차량 공용 충전 인프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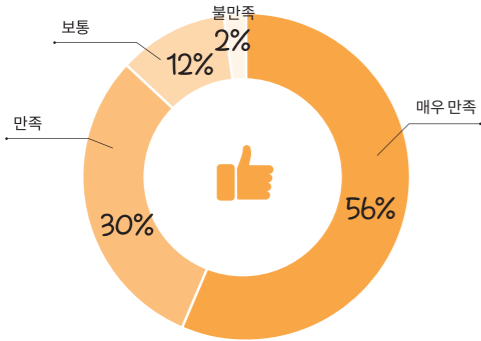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공항 최초로 디젤 조업 차량을 대체할 전기 조업 차량용 충전 인프라 16기 운영을 개시했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한 충전 인프라는 인천공항 계류장 지역(항공기 지상 이동 지역)에 설치된 전기 지상 조업 차량의 운영을 위한 필수 시설로, 앞으로 인천공항 내 친환경 전기 지상 조업 차량의 도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충전 인프라 도입을 통해 기존의 디젤 조업 차량이 친환경 전기 차량으로 전환되면 인천공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대기질 개선을 통해 공항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저탄소·친환경 공항 운영을 선도할 계획이다.

여러분의 <MORE&BEYOND>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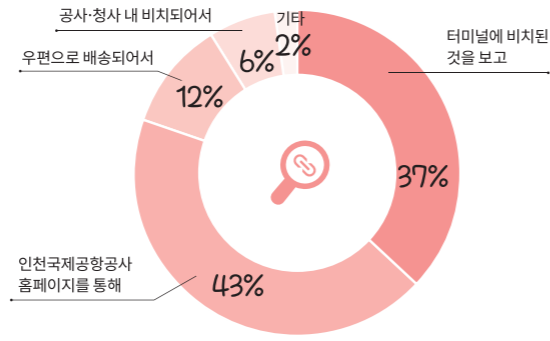
인천공항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매거진 <MORE&BEYOND>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편집부는 향후 더 나은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MORE&BEYOND>에 대한 만족도



<MORE&BEYOND>를 알게 된 경로



가장 흥미 있는 기사 타이틀은(복수 선택 가능)



그 외 PEOPLE 7% / ISSUE 7% / SENSE 6% / AIRPORT PEOPLE 5% / CULTURE 5%
INDUSTRY 4% / HEALTH 4% / NEWS 3% / ESG 1% / SURVEY 1%

<MORE&BEYOND> 독자님의 소중한 의견 보내주세요

2023년 11+12월호는
설문조사 독자의견 결과를 안내합니다.

해당 페이지의 QR코드를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설문에 참여하신 독자 30분께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 기간: 2023년 10월 10일까지



일상으로의 초대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 유난히 지쳤던 일상을 탈출하고 싶을 때 우리는 여행을 떠올립니다. 같은 시간에 눈뜨고,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가 지겨워질 때쯤 우리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야겠다고 결심하죠. 저마다의 방법으로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행의 디테일을 마주하고 잔뜩 기대에 부푼 채 공항으로 발걸음을 향해봅니다. 공항을 가득 채운 여행을 향한 열망은 사람들에게 일상을 벗어난다는 자유로움을 선사합니다. 길게 늘어진 줄은 물론 거추장스럽고 복잡한 여러 절차까지 여행을 위해 기꺼이 받아들게 되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오롯이 일상과 다른 곳에서 시작될 내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합니다.

목적지에 닿은 뒤, 계획했던 여러 가지를 미션처럼 해치우고 나면 문득 떠오릅니다. ‘아, 여행은 끝이 있구나’, ‘여행은 돌아감을 전제로 하는 거구나’라고 말이죠.

길었던 여름, 많은 이들이 휴식과 충전을 위해 여행을 선택하고 공항이라는 관문을 거쳐 일상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활주로에 도착하고, 조금은 지친 얼굴로 현실로 복귀하고, 하나둘 그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지요. 이제 귀뚜라미 울음소리와 함께 선선한 바람이 우리를 감싸고 계절이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전된 에너지를 원료 삼아 다시 한번 시작될 일상을 맞이하는 건 어떨까요. 여행이 돌아옴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일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시 떠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테니까요. 단, 여행의 기쁨을 맛본 당신에게는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아닌 매일이 새로운 일상으로의 초대장이 곧 도착할 거예요.

